

제2장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

1. 지역현황
2. 경관자원조사
3. 경관구조
4. 경관의식조사
5. 관련법규 및 계획
6. 사례분석
7.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지역현황

입지여건 및 역사문화

입지

- 당진시는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삽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서쪽으로 서산시, 남쪽으로 예산군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해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화성시·평택시와 접하고 있음
-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 및 수도권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로부터 102km의 거리에 위치한 서해안 교통요충지임
- 서해안 임해신산업단지의 배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아산만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당진항과 함께 해상 물류·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서해안벨트에서 거점항만으로서 기능을 다하며 산업도시로서 당진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육로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2001)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2009)으로 대전 및 영남지역까지 연계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행정구역 변천

-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마한(馬韓)의 영역이었으며, 삼국시대 백제 때에는 면천에 해군이 있어서 당진의 넓은 범위(範圍)를 관장하였음
- 통일신라 제 35대 경덕왕 때는 해성군의 영현인 당진현이었고, 고려시대 초기는 지방제도가 설치되지 않고 지방호족이 다스렸으며 성종(成宗) 2년(983)에 전국을 12주로 나눌 때는 공주에 속했음
- 고려 8대 현종(顯宗) 9년(1018)에는 운주(지금의 홍성)에 속한 당진현이었으며, 고려 제16대 예종(睿宗) 원(1105)에는 감무(監務)를 둔, 고려 말엽 공민왕 7년(1358)에는 홍주목에 속했음
-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때와 같이 홍주목에 속했다가 태종(太宗) 13년(1413) 당진에 다시 현감을 두었으므로 충청도 당진현이었고, 조선시대 말엽 고종32년(1895)에는 당진군이 되어 군내, 동면, 남면, 상대, 하대, 고산, 외맹, 내맹의 8개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때 면천군의 22개면과 해미군 일도면 대운산의 2개리와 염술면 삼곡리의 일부와 예산군 신종면의 옥금·흑석의 2개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당진군이 됨
- 이후, 당진읍 승격, 합덕읍 승격, 송악읍 승격에 이어 2012년 1월 당진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름

역사적 특성

- 당진은 해안선이 발달해 있어 어패류가 풍부하고 넓은 구릉성 경작지가 발달해 있어 선사인들의 생활에 좋은 자연지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음
- 당진(唐津)이라는 명칭은 당나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데 뱃길로 당나라로 가는 최적의 나루였으며, 신라와 당나라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인 신라 성덕왕 때 등장하였음. 고대부터 전국적인 뱃길의 요충지로서 조창이 많아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역사적으로 뱃길과 항구를 지렛대 삼아 발전해 왔음
- 그러나 해방 후 중국과의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적성국이라는 이유로 당진의 항구와 뱃길의 유용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육로 교통여건이 불편했던 당진은 충청남도의 오지로서 통하기도 했으나 오늘날 서해안 시대가 도래하면서 당진이 산업도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중앙의 지배체제에 의해 백제시대에는 면천에 해군이, 당진을 중심으로 고대까지 벌수지현, 정미는 여촌현, 신평을 중심으로 송악, 한진의 넓은 해안까지 사평현으로 편제되었음. 통일신라시대에는 면천이 해성군으로 개칭되고, 당진과 신평이 각각 당진현, 신평현으로 해성군의 관할 현이 되었음. 조선시대 초기에는 면천군이 14개 면, 당진현이 8개 면을 관할하였다가 후기에는 당진이 당진군으로 개편되고, 신평이 면천군에 통합되었음
- 본래 면천이 당진보다 더 큰 고을이었으나 1914년 일제행정구역 개편(군면폐합)으로 면천군이 당진에 편입되어 당진군이 됨으로써 오늘날 당진이 군의 정치 및 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하게 됨. 합덕, 신평, 면천, 우강 일대를 중심으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개항이후 일본으로 쌀수출이 본격화되고 일제수탈의 요지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때 합덕은 경제적 중심지로 번성할 수 있었음
- 역사적으로 바다와 접해 외부문물의 유입이 용이한 지역이며, 면천을 비롯한 농경지대의 내부 문화와 접하여 독특한 서민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지역임
- 이러한 결과로 현재 대표적 역사자원인 천주교 관련자원에 김대건신부 생가지, 합덕성당, 불교 자원에는 안국사지, 영탑사, 유교자원에는 당진·면천향교, 한음선생영정, 관방자원에는 면천읍성, 당진포진성, 가옥에 한갑동 가옥, 민속자원에 기지시 줄다리기, 면천 두견주 등은 당진의 역사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당진 옛지도(19세기)



기지시줄다리기



안국사지석불입상



솔피성지(김대건 신부)

인구 및 가구현황

인구 및 가구

- 2011년 현재 당진시의 인구는 충남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하며, 인구밀도는 216.2인/km²로 충남 243.5인/km²보다 낮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의 분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대당 인구수는 2.34인으로 이는 충남 전체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읍면별로는 당진동의 인구가 가장 많으며, 송악읍, 신평면, 합덕읍 등이 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인 구 수			구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합계	150,219	77,703	72,516	100.00	51.73	48.27	64,333	2.34
당진동	53,468	27,099	26,369	35.59	18.04	17.55	21,023	2.54
합덕읍	10,758	5,591	5,167	7.16	3.72	3.44	4,789	2.25
송악읍	23,647	13,003	10,644	15.74	8.66	7.09	11,280	2.10
고대면	6,045	3,051	2,994	4.02	2.03	1.99	2,688	2.25
석문면	7,960	4,095	3,865	5.30	2.73	2.57	3,737	2.13
대호지면	2,886	1,449	1,437	1.92	0.96	0.96	1,304	2.21
정미면	3,971	1,925	2,046	2.64	1.28	1.36	1,999	1.99
면천면	3,879	1,965	1,914	2.58	1.31	1.27	1,720	2.26
순성면	6,093	3,074	3,019	4.06	2.05	2.01	2,543	2.40
우강면	6,274	3,172	3,102	4.18	2.11	2.06	2,569	2.44
신평면	15,932	8,190	7,742	10.61	5.45	5.15	6,417	2.48
송산면	9,306	5,089	4,217	6.19	3.39	2.81	4,264	2.18

자료 : 당진시 내부자료(2011.12 현재)

인구구조

- 당진시의 인구구조는 0-5세 6.7%, 학령인구인 6-20세는 16.3%, 경제활동인구인 21-65세는 61.5%를 차지하고 있음

읍·면·동별 인구변화

-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추이는 당진동, 합덕읍, 송악읍, 송산면을 따르는 국도 32호선을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의 진행에 기인함

토지이용

지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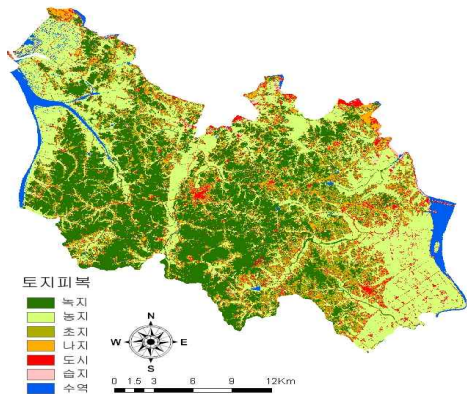
- 전체면적 중 임야가 244.71km²(36.81%), 답이 204.43km²(30.8%), 전이 70.02km²(10.5%), 대지가 16.45km²(2.5%), 기타 129.17km²(19.4%)를 점유
- 도시적 용도인 대지, 공장, 학교, 도로, 공원, 체육용지의 경우 전체토지의 8.4%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1996~2005년 토지이용변화추세를 보면 농업용 토지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체 입지로 공장용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안·하천·호소 등의 수변지역 개발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유원지 등의 면적비율이 높아졌기 때문

토지피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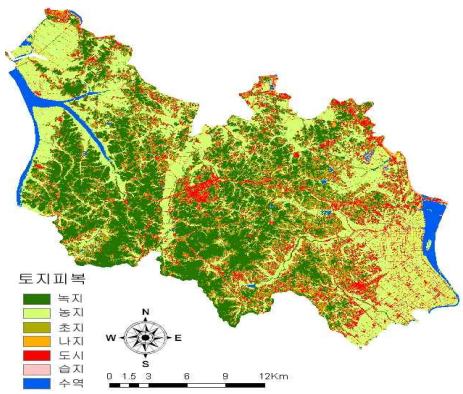
- 토지피복의 패치수중 가장 많은 감소한 용도는 산림, 농지, 나지, 습지는 감소한 반면, 도시, 초지는 월등한 증가추세로 나타나 도시적 토지이용이 활발함
- 피복 변화 경향이 국도 32호선을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림에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공장용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지역적으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당진시 동측의 변화가 뚜렷함

(단위 : km²)

구분	산림(%)	농지(논)	초지 (밭+초지)	나지	도시	습지	수역	계
1994	216.0(33.2)	235.9	94.7	25.0	50.0	6.9	21.4	649.9
2004	194.4(29.9)	225.3	113.8	20.1	71.7	3.0	21.4	649.7
증감	-21.6	-10.6	19.1	-4.9	21.7	-3.9		-0.2



토지피복분류도(1994년)



토지피복분류도(2004년)

지형·지세

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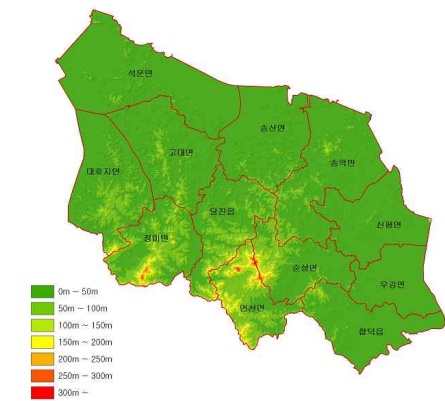
- 당진시는 내륙부인 남측이 높고 해안부인 북측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당진시의 경관골격을 형성
- 표고 50m 이하의 저지대가 450.48km²로서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음
- 표고 100m 이상의 토지가 107.26km²으로 16.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구분	계	50m미만	50m~70m	70m~100m	100m~200m	200m~300m	300m 이상
면적(km ²)	664.79	450.48	53.65	53.40	50.51	47.35	9.40
%	100	67.8	8.1	8.0	7.6	7.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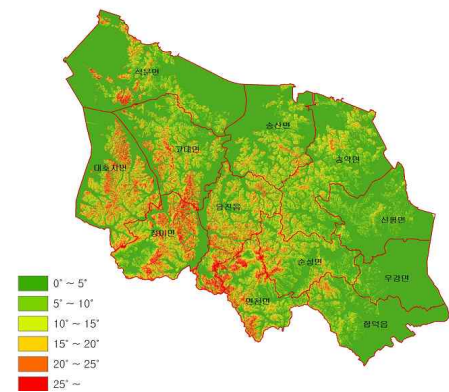
경사

- 평지라고 할 수 있는 경사 5°미만의 토지가 449.62km²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도 15°이상의 급경사지가 106.84km²로 16.1%를 차지

구분	계	5°미만	5~10°	10~15°	15~20°	20~30°	30°초과
면적(km ²)	664.79	449.62	54.66	53.67	49.93	46.84	10.07
%	100	67.6	8.2	8.1	7.5	7.1	1.5



표고분석



경사분석

2. 경관자원조사

산림경관

특성

- 당진 남측을 기점으로 북측 4개 방향으로 산림능선축 형성
 - 남고북저의 지형으로 해발고도 400m 미만의 잔구성 산지를 형성
- 각 산림능선축에는 하천이 발달하여 시가지 및 농경지를 감싸는 형상
- 대부분의 산림이 생태자연도 2등급이며, 구릉성 산지를 형성
 - 정미면의 은봉산을 시작으로 북측 고대면을 향해 작은 구릉지가 이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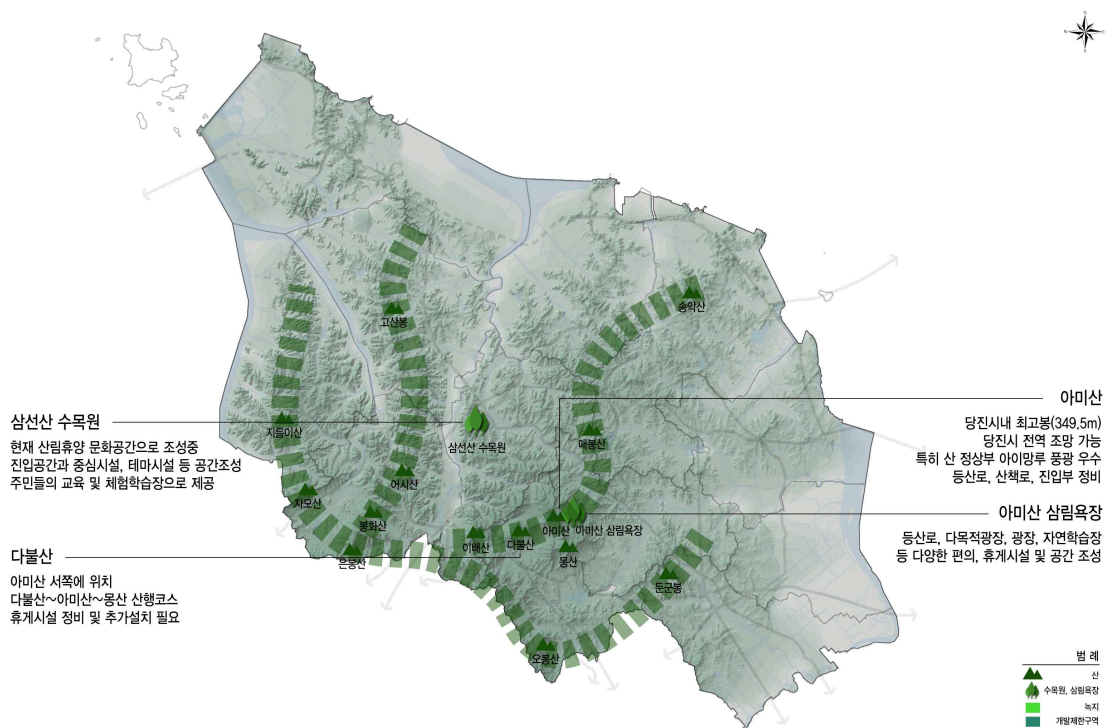
분석

100m이상 주능선축

- 아미산, 다불산, 이배산, 몽산 등은 당진시 경관구조의 골격이자 시가지의 배후 경관 역할
- 산지조망 확보를 위한 조망축 설정 및 조망관리 필요
- 위요된 산지를 조망하기 위한 통경축 확보 필요

100m이하 구릉지 경관

- 주능선축으로부터 도시의 중심적 녹지경관 형성
- 자연환경을 제공하지만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자연성이 훼손되고 있고, 기존의 주변 주거지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주변 산지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제공하는 여가와 휴식공간 조성



하천·호소·해안경관

특성

- 삼교천, 당진천, 남원천, 역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분포
- 대부분의 하천은 개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
- 방조제의 건설로 형성된 석문호, 삼교호, 대호지 등의 담수호는 농·공업용수로 이용되며, 대규모의 개방형 공간을 형성
- 호수로의 낮은 접근성과 주변 경관관리는 소홀
- 연꽃군락을 이룬 오봉재 등 우수한 호소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연출
- 호소주변으로 낚시터 및 가설시설물의 방치로 자연 경관을 위협
- 각기 철새 도래지로 알려져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자연경관을 연출
-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은 주변과의 경관부조화



삼교천



당진천



역천



시기소천



천수공간조성(당진천)



당진천변 무질서한 건축물 경관

분석

주거지역 및 관광지 통과하천(당진천)

- 제외지에 대해서는 자연형 호안 정비와 접근로 개설을 일부구간 추진하여 경관 양호
- 하천변 건축물 규모, 외관, 스카이라인 등의 관리 필요
- 국가하천인 삽교천은 삽교호로 이어지면서 관광·레저 등의 수변문화공간을 형성

취락지 및 농경지 통과하천(기타 하천)

- 음식점, 농경지와 인접한 한적한 농촌경관을 형성
-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자연형 하천 경관을 형성
- 자연형 하천은 하천변에 농경지가 발달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을 형성

담수호

- 방조제 설치로 인해 형성된 석문호수는 면적이 넓어 대규모 개방형 경관을 형성
- 석문방조제 제방도로변 녹지대에 형성 및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필요
- 아스팔트 주차장과 간이천막식당 등은 주변과 부조화 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필요



석문호



호수변 녹지공간 경관정비(석문호)



조망데크 및 주차장 조성



천막 간이식당 경관부조화

저수지

- 오봉제는 넓은 면적의 저수지 한 가운데 섬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음
- 겨울철새인 고니(천연기념물 201호)의 도래지이고, 일부 연이 식재되어 생태환경 우수
- 오봉낙시터에 설치된 가설시설물과 쓰레기,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해 경관관리 필요
- 초대저수지는 주변의 농촌지역의 구릉지, 산림과 어우러져 매력적인 수변경관을 형성
- 마을의 농가, 축사 등의 시설물 경관이 주변과 부조화 및 쓰레기로 불량경관 형성
- 면천저수지변으로 카페, 음식점, 농가, 축사 등의 시설물이 분포로 경관훼손 심각
- 저수지 대부분이 농업용수나 낙시터로 활용되고 있어,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천막, 컨테이너박스, 이동식화장실 등이 입지하거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수변경관을 저해함



오봉제 가운데 조성된 섬



군집식재된 연(오봉제)



낙시터 가설 시설물 및 쓰레기



초대저수지변 축사



초대저수지변 마을, 비닐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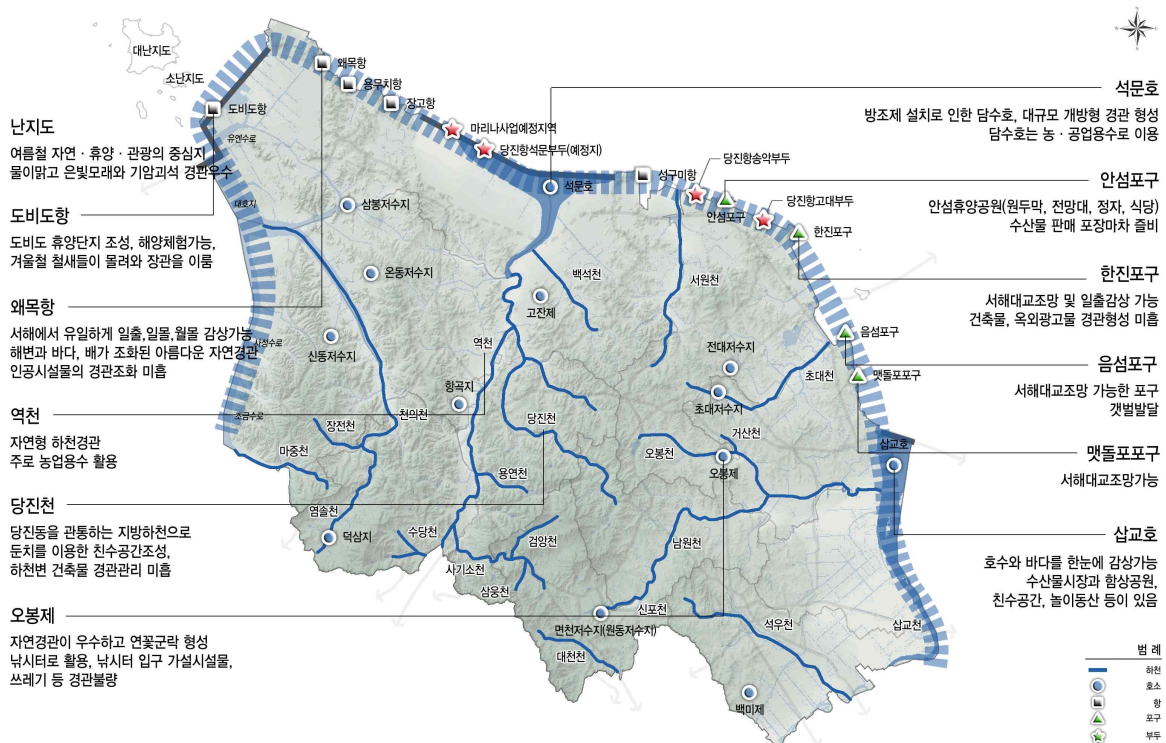
저수지변 주택의 경관부조화



오봉제



면천저수지



해안 및 도서 경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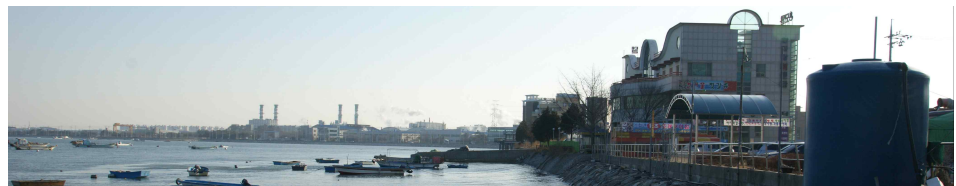
-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여 굴곡이 있고, 자연형의 조망형 해안경관을 연출
- 간척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석문방조제와 대호방조제 일원은 방조제의 축조로 해안선이 단순해짐
- 항포구는 소규모 어선이 드나드는 곳으로 고유한 해안경관을 형성
 - 항구는 도비도항, 왜목항, 용무지항 장고항, 성구미항 등 5개소가 있고, 포구는 한진포구, 안섬포구, 음성포구, 땃돌포구 등 4개소가 있음
- 해안가에 입지한 건축물 및 시설물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경관이 불량
- 당진의 섬은 아직 개발의 처녀지로 숲과 은빛모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
 - 도서는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등 유인도 3곳과 우무도, 소조도, 비경도, 분도, 철도 등 무인도 5곳이 있음



도비도항



안섬포구



한진포구



대난지도

분석

- 당진시는 북부에 여러 반도 사이의 좁은 만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므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조망경관 연출 필요
- 서산시와 당진시 사이의 대호지만 지역은 외부로는 방조제의 축조로 해안선이 단순해 개방형 경관을 형성하고, 내부로는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므로, 이를 한눈에 조망가능한 시설물 조성

- 당진의 항·포구는 길게 늘어선 방파제, 등대, 바다 등이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경관을 형성
- 해안가에 입지한 건축물의 형태나 채질, 색채가 주변과 조화롭지 않고, 각종 옥외광고물, 공공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경관 관리 필요
- 해안가 주변의 숙박건축물의 경우, 당진시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변경관의 조화를 도모토록 고려
- 당진의 섬은 천혜의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해수욕과 낚시, 수상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양·레저 공간으로서 경관의 보전·형성·관리가 필요
- 당진시의 섬은 당진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당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므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관관리 필요
- 서해안의 특성상 낙조시간대에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경관창출을 위한 배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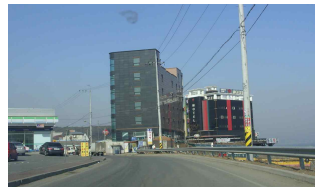
해안선 전경



한진포구



방조제 건설에 따른 경관변화



항구, 포구 건축물 경관 부조화



왜목마을



해안가 건축물



당진의 섬



대난지도



소난지도

농경지 경관

특성

- 농경지는 서해안과 접한 북측에 주로 위치하며, 서해와 접하는 지역에는 하천 하류로서 평야지대 형성
- 대규모의 농경지는 미작중심의 광활한 개방형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야지대에 간헐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전원적인 경관을 형성
- 이러한 대규모의 농경지는 대규모의 대호방조제, 석문방조제 건설로 대호간척지, 석문간척지에 집중분포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경지는 당진시 동남부의 합덕, 순성, 우강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농경지가 분포
- 당진시 서부에는 평야와 구릉지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분포하며, 대부분 미작이 아닌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음
- 경관적으로는 자연취락마을을 형성하여 서정적인 취락경관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개별공장의 입지 및 송전탑으로 인하여 자연경관과의 부조화가 발생



석문간척지



삽교평야



서정적인 취락경관



개별입지 공장의 경관부조화



송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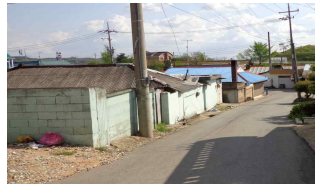
분석

- 당진에는 당진 화력발전소가 입지하여 송전탑이 농경지를 가로질러서 설치됨에 따라 농촌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급속한 시가화로 인하여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로 인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해경관 저감방안 필요

취락지 경관

특성

- 농가 주택은 기존의 농가주택과 양식이 불분명한 펜션형태의 건축물이 입지함에 따라 경관적인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이것은 건축양식과 재료의 혼재로 귀결이 되며, 적벽돌 평슬래브집, 황토집, 서양식 목구조형태의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음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등과 같은 농어촌지역에 분포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적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음
- 취락지에는 기존의 창고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농자재등의 무단 방치로 인하여 농촌경관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원경에서는 당진시 북부를 중심으로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이 공존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지의 경우, 나홀로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경관부조화가 심각함



전통적인 농가주택



서양식목구조형태의 건축물



농촌지역 나홀로 아파트



도로변에 위치한 경로당



취락지 인근에 위치한 창고건물



농기계의 가로변 방치

- 농촌경관에서 크게 문제시 되는 경관중의 하나가 간선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에 까지 넓게 위치하고 있는 축사등은 정리안된 기자재의 방치, 배설물 보관시설의 미구축, 비닐위주의 입면처리로 인하여 환경적인 악취와 더불어 경관상 매우 불량함
- 또한,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로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콘크리트구조물에 의한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농가인근 축사



도로변 농수로

분석

- 농가주택의 획일화 및 무질서한 외관 및 색채 부조화 그리고 폐가, 버려진 농자재 및 시설물 등 방치된 농촌쓰레기, 시가지 주변의 농촌지역으로 주거지가 확산
- 농가주택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가주택과 신규로 입지하는 서양식 목구조형태의 농가주택이 입지함에 따라 경관적인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일부 농경지에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고층아파트가 입지 등으로 인해 농촌 특유의 서정적인 경관이 훼손됨
- 또한, 농촌취락경관중 마을 안쪽에는 축사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입지함에 따라 악취는 물론 쓰레기의 방치, 시설하우스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전원적인 농촌취락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경관차폐등의 경관저감노력이 필요
- 당나루 물곶 송마마을, 영전황토마을, 울리고마을, 푸레기마을, 검은들마을 등 테마형 체험마을이 있으며 마을의 건축물, 시설물 등의 경관을 정비하고 농경지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농촌경관 형성 필요



당나루 물곶 송마마을



영전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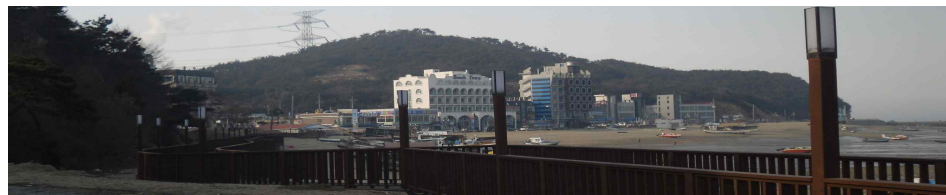


울리고마을

항포구 경관

특성

- 어촌지역의 경관은 전통적인 어촌경관과 더불어 펜션등의 관광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에 따라 경관적인 부조화가 심각함
- 근경범위에서는 일부 경관요소를 개선하였지만, 노후주택, 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경관이 혼재하여 경관 불량



왜목항 왜목마을



장고항 실치마을



성구미항

주거지 경관

특성

- 당진동, 합덕읍, 송악읍, 신평면의 아파트 고층 주동은 주변의 중저층 단독주택과 높이와 규모에 있어 급격한 차이로 위압경관을 형성하며 무질서한 도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 송악읍, 송산면 일원에 나홀로 아파트의 점적개발로 경관 및 환경피해를 유발함
- 단독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지는 개발밀도의 증가로 공공시설 부족문제, 도로의 주차장화, 녹시율 저하, 공동공간 부재 등이 심각
- 읍면단위의 단독주택지내 유일한 공공공간인 도로는 단순히동과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만 기능하게 되었고, 도로변 주택들의 획일적 외관과 옥탑방, 물탱크 등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옥상시설 설치 등으로 무질서한 주거경관을 형성함
- 당진동 남산공원 등 시가지내 구릉지를 잠식한 단독주택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건축물의 색채 부조화로 구릉지에서의 조망 경관이 불량함



단독 · 다세대주택(당진동)



단독주택(송악읍)



아파트단지(당진동)



연립주택(당진동)



신규 조성된 다세대주택(합덕읍)



비거주용(순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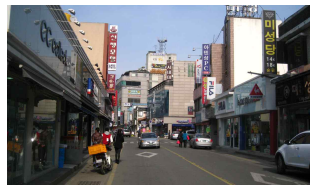
분석

- 고층 아파트에 의한 주변 산지 경관 차폐를 저감하고, 도시스카이라인 형성 필요
- 정비되지 않은 단독주택 건축경관으로 낙후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경관적 고려
- 공동주택에 의한 위압적 스카이라인 형성
- 아파트 외벽의 과도한 로고 및 문양(C.I, B.I) 사용에 대한 경관 고려
- 식재공간 부족으로 삭막한 주거경관 형성
- 인공적인 외장재로 경관이미지 낙후
- 주거지의 녹화, 공동공간의 부재, 녹지의 잠식에 대한 경관적 대안 마련 필요
- 폐쇄적 경관 형성 및 근경에서의 경관 위해요소 노출에 대한 경관형성 고려

상업지 경관

특성

- 당진동 구시가지는 당진동의 역사를 간직한 골목길과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지만 차량 중심적 공간구성 및 무질서한 건축물 외관, 난립한 옥외광고물, 공공공간부족 등으로 경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보행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공공공간 조성 및 연계, 건축물 외관 정비, 옥외광고물 개선이 요구됨
- 당진터미널 일대의 당진동 신시가지는 상업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행공간이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전면 공개공지, 보도의 불법 주정차량, 각종 쓰레기, 노점, 이동식 간판, 상품적재, 분전함 등으로 보도면적이 일부분 사유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물은 원색 등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색채 및 재료 사용, 기능보다는 장식을 고려한 디자인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과 기능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옥외광고물이 난립하여 상업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합덕읍은 합덕터미널을 중심으로 주변에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있으며 노후건축물 및 외관의 부조화, 옥외광고물 난립, 차량위주의 가로공간구성으로 인한 보행환경 열악, 불법주정차량, 방치된 나대지 등으로 인해 경관이 불량함으로 합덕터미널 일대의 노후 되거나 주변과 부조화 되는 건축물 외관정비, 옥외광고물 개선, 방치된 나대지 경관 개선 등이 시급함



당진동 구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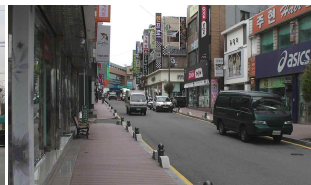
당진동 신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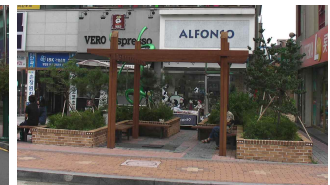
당진터미널 일대



면천면



상업지역 보행로(당진동)



삼지공원(당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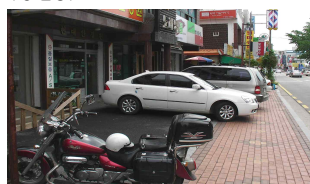
차량중심 공간 보행환경 열악
(당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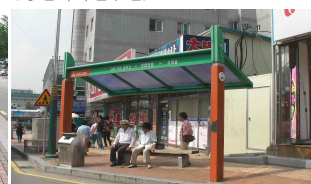
난립한 옥외광고물
(당진터미널주변)



공공시설물 보행공간 점유
(당진동)



전면 공개공지의 불법주정차량
(당진동)



공공시설물의 원색 사용 및 통일성 없는 디자인(당진동)



방치된 나대지 가로경관 저해
(합덕읍)

분석

- 무문별한 상업용 광고물로 인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기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 상업시설이 획일화로 인한 특색없는 상업이미지 형성
- 상업시설의 과도한 공간차지로 보행공간 협소
- 당진시를 대표하는 상업가로의 부재
- 건축물 시설물의 노후화로 낙후된 이미지 형성
- 어디서나 똑같은 획일적인 가로 경관 형성
- 재래시장 인근의 미세 환경의 열악으로 쾌적한 쇼핑공간 관리 필요
- 옥외광고물은 원색,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색채, 과도한 크기, 실사적용 디자인, 지나친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인해 무질서한 상업경관 형성

공업지 경관

특성

- 아산국가산업단지는 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불량경관을 차폐하고 삭막한 산업단지의 가로경관을 개선하였지만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해안가에 입지하여 해안에서 조망되는 경관이 불량함
-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방치된 각종 자재나 장비나 공사장 현장의 노출 등으로 인해 도로 경관이 불량하며 향후 복합업무단지 형태의 교육, 문화, 관광단지 및 유통시설 등 여러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조한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공업지의 위압감을 감소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할 필요
- 농공단지는 도로변에 소폭의 녹지대를 형성하여 불량경관을 차폐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외벽, 지붕 색채, 담장, 옹벽 등이 일부 노출되어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함.
- 원경에서 보이는 농공단지는 건축물의 입면, 지붕 색채가 주변과 부조화로워 불량 경관으로 인식됨
- 당진화력발전소는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 메스와 흰색과 하늘색으로 조화된 색채,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 등으로 어디서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규모나 높이가 주변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높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위압경관을 형성]



도로변 완충녹지대 조성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중인 산업단지 도로변 차폐 미흡
(석문국가산업단지)



도로변 완충녹지대 조성
(송산일반산업단지)



위압경관형성 및 색채 부조화
(당진화력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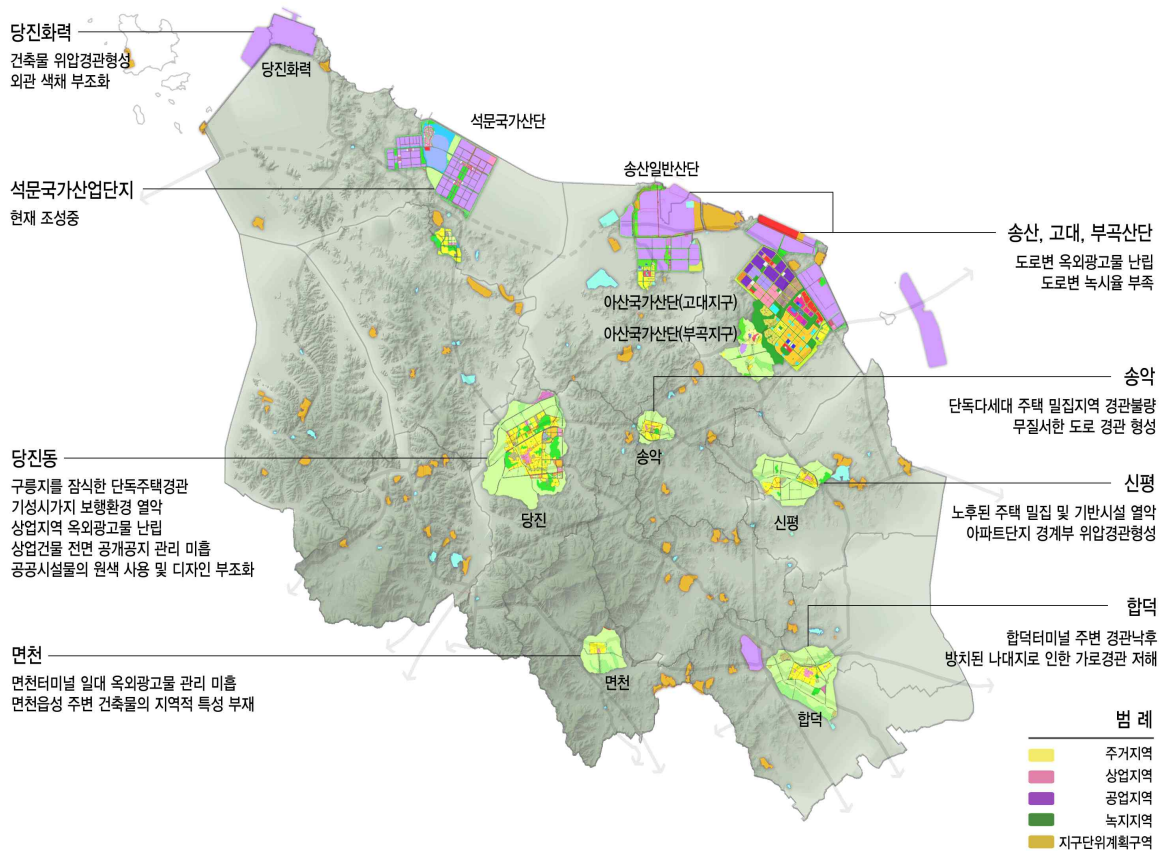
원경에서 조망되는 농공단지의
경관부조화 (합덕농공단지)



개별 공업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분석

-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해안가에 입지하여 해안에서 조망되는 경관이 불량함
- 산업단지 내부의 도로변의 차폐녹지 시설 확충 및 위압경관 저감 필요한 바, 건축물, 녹지대, 도로, 가로시설물 등 경관요소를 개선하여 공업지의 위압감을 감소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대규모 시설물이지만 규모나 높이가 주변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높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위압경관 해소를 위한 매스의 분절, 색채사용 등을 강구
- 송산일반산업단지는 도로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경관을 차폐하고 있으며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형성
-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국도변 등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업시설은 차폐식재나 녹지대 조성이 미흡하고 난개발로 인해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훼손함
- 고명도의 주조색 사용과 고채도 색채의 넓은 면적 사용이 빈번함
- 보조색은 주로 B,G계열의 중,고채도 사용 일부 YR-R계열 사용
- 지붕색은 B계열의 고채도색과 회색계열을 주요 사용



도로경관

특성

- 국도변은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진행으로 혼잡스러운 경관 야기
- 지방도(농촌도로)주변은 공장,담장,옹벽으로 주변과 부조화된 경관 형성
- 방조제 도로는 도로변 조망, 주차공간 부족 및 위압경관 형성
- 획일적이고 차별화되지 못한 진입 관문 경관
- 진입관문의 인식성 및 상징성 미흡
- 진입관문시설인 버스터미널은 옥외광고물 난립,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
- 색채, 디자인 등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위압경관 형성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디자인
- 조형성이 부각된 서해대교는 당진의 랜드마크로 인식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진고속도로



국도32호선(당진동)



국도34호선



국도38호선



국도32호선(정미면)



국도32호선(합덕읍)



국도34호선(신평면)



국도38호선(석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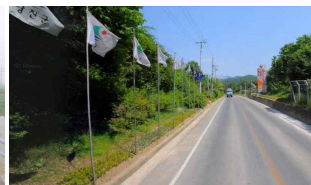
지방도70번(합덕읍)



지방도70번(당진동)



지방도615번(합덕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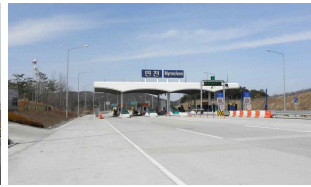
지방도619번(면천면)



지방도622번(합덕읍)



당진IC



면천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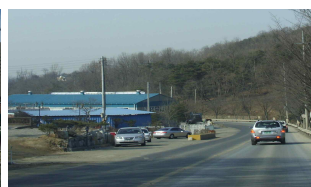
송악IC

분석

- 국도변은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진행으로 혼잡스러운 경관 야기
- 시가지 도로변에는 옥외광고물, 가로수, 가로시설물, 도로구조물, 전신주, 건축물 등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혼잡스러운 경관을 보임
- 시가지내 주요 교차로는 시각적 결절부로서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대부분 단조로운 건물 형태와 획일적인 외관, 난립한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매력적이지 못하고 부조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고속도로는 철재를 사용한 폐쇄적인 형태의 방음벽, 구릉지 절개사면, 도로변 옥외광고물 등이 불량경관을 형성함
- 산업단지 주변의 도로(국도38호선)변에는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경관성을 향상시켰지만 옥외광고물이 난립한 산업관련 상가와 도로변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도로경관이 불량함
- 지방도(농촌도로)변에서 가장 크게 불량경관으로 인지되는 요소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개별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 담장, 옹벽 등이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이질감을 조성함
- 방조제 도로는 방조제 안쪽으로 넓은 호수가 조망되는 직선형 도로로서, 호수변으로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변에 조망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콘크리트 제방사면이 위압감을 형성함



무질서한 시가지도로(국도32호선)



농촌도로 주변 건축물 경관부조화



구릉지 훼손 및 녹화부족



도로변 불법주정차량(국도38호선)



도로변 옥외광고물 난립(국도38호선)



조망 및 주차공간 부족(석문방조제)



폐쇄적인 방음벽(대전당진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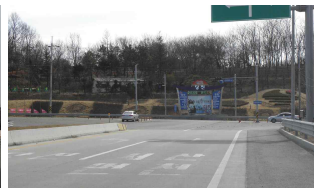


당진동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 옥외광고물 경관불량

- 고속도로IC는 대전-당진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당진으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타시군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조성
- 도로변에 설치된 경관녹지대, 조형물, 깃발게양대 등으로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IC주변에 건축물, 농경지 등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관을 형성함
- 진입관문의 공간 인식 및 상징성이 미흡함. 특히, 바다를 경계로 하는 경우에는 시계공간의 영역 인식이 가능하지만 인접도시와 농촌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계지역의 경우 진입 관문공간의 인식 및 장소성이 미흡함
- 버스터미널은 시가지내에 위치하는 관문시설로서, 신시가지에 당진터미널은 신규조성하여 쾌적한 시가지 관문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합덕터미널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시가지 경관의 수준이 낮아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함



특색없는 톨게이트 디자인
(당진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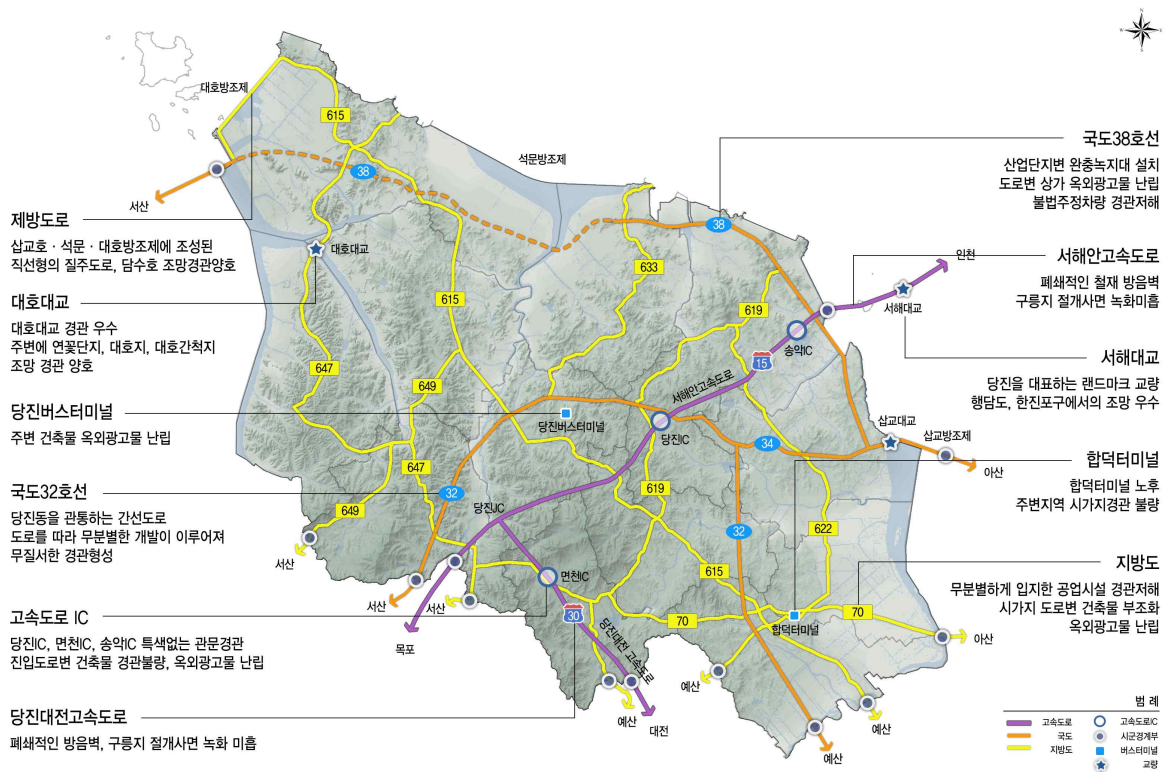
소극적인 진입 경관 조성 및 시설물
(면천IC)



IC 건축물, 옥외광고물 난립(당진IC)



공간적 인식 및 상징성 없는 경계부(국도32호선 시군경계부, 합덕읍)



역사문화 경관

특성

- 중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정미 미흡
-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의 일체화된 경관관리 필요
- 접근로의 편의시설 미흡 및 주변지역 가로경관 불량
- 내포문화권의 특성중 하나인 천주교 관련(내포교회) 시설물의 일체적 정비
- 중요무형문화재를 테마로 한 역사적 특수성 디자인 도입 필요

분석

- 안국사지에는 안국사지석탑(보물 제101호), 안국사지석불입상(보물 제100호), 안국사지매향암각(충청남도 기념물 제163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중요 불교 유적지이지만 당해 문화재만의 경관적 고려가 있으므로,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안국사지 접근로는 비포장 도로이면서 공공시설물이 부재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진입로변 농가, 농기구, 컨테이너,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가로경관이 불량함
- 안국사지석탑 옆에 일반 블록주택의 철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벤치 등이 훼손되어 있으며 조립식 건축물, 파란색 철재 지붕, 파란색 포장자재 등이 문화재 주변에 있어 조화롭지 않은 경관을 형성함



비포장 진입도로



진입로 주변 건축물, 시설물 경관불량



안국사지 주변 건축물 경관부조화

- 면천읍은 조선초 서해안 내포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지역으로 면천읍성, 면천향교, 몽산성 등의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어 당진시의 역사문화경관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임
- 면천읍성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샘 및 성황사 주변지역 시굴 및 발굴을 시작으로 성벽, 성문, 웅성지역, 관아건물, 성곽복원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면천읍성복원과 맞물려 주변의 지역 건축물, 상업시설, 가로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이 역사문화적 특성에 어울리도록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면천읍성 주변 시설물 부조화



면천읍성 주변 건축물 경관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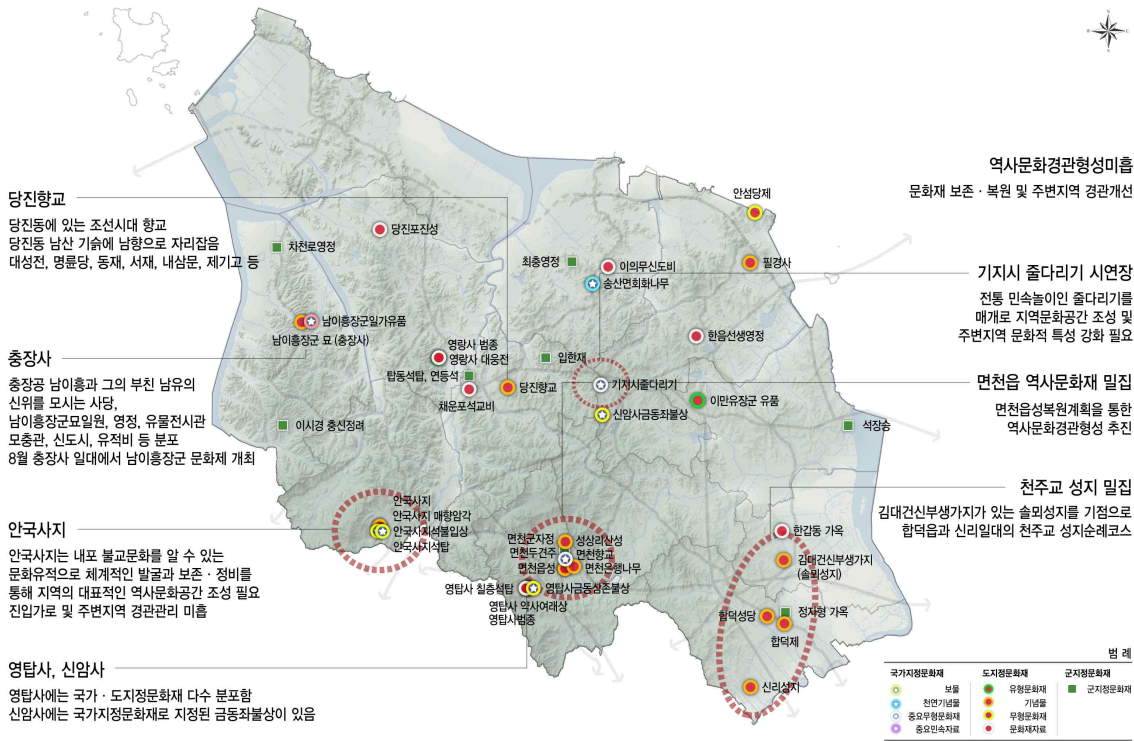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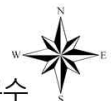
역사문화적 특징없는 면천면사무소

- 당진시 우강면의 솔피성지를 시작으로 합덕읍의 합덕성당, 신리무명순교자묘, 신리성지 등으로 이어지는 버그네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구양도에서 신리성지까지 연결하는 내포 천주교 순례길 조성이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지시줄다리기, 면천두견주 등의 소재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테마로 하여 역사적 특성을 강화하고 정돈된 문화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석문제방
석문제방에서의 조망경관우수
제방도로 사면 위압경관형성

안섬풍어제
안섬풍어제가 열리며
안섬휴양단지에서 해안조망이 우수함

필경사
필경사는 심훈의 생가지로 상록문화제가 열리며 주변은 농촌경관임

한진포구
한진포구에는 바지락축제가 열리며
서해대교 조망이 우수함

서해대교
서해대교는 당진의 랜드마크적 요소

기지시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대에 역사
문화적 특성 부족 및 진입부 경관차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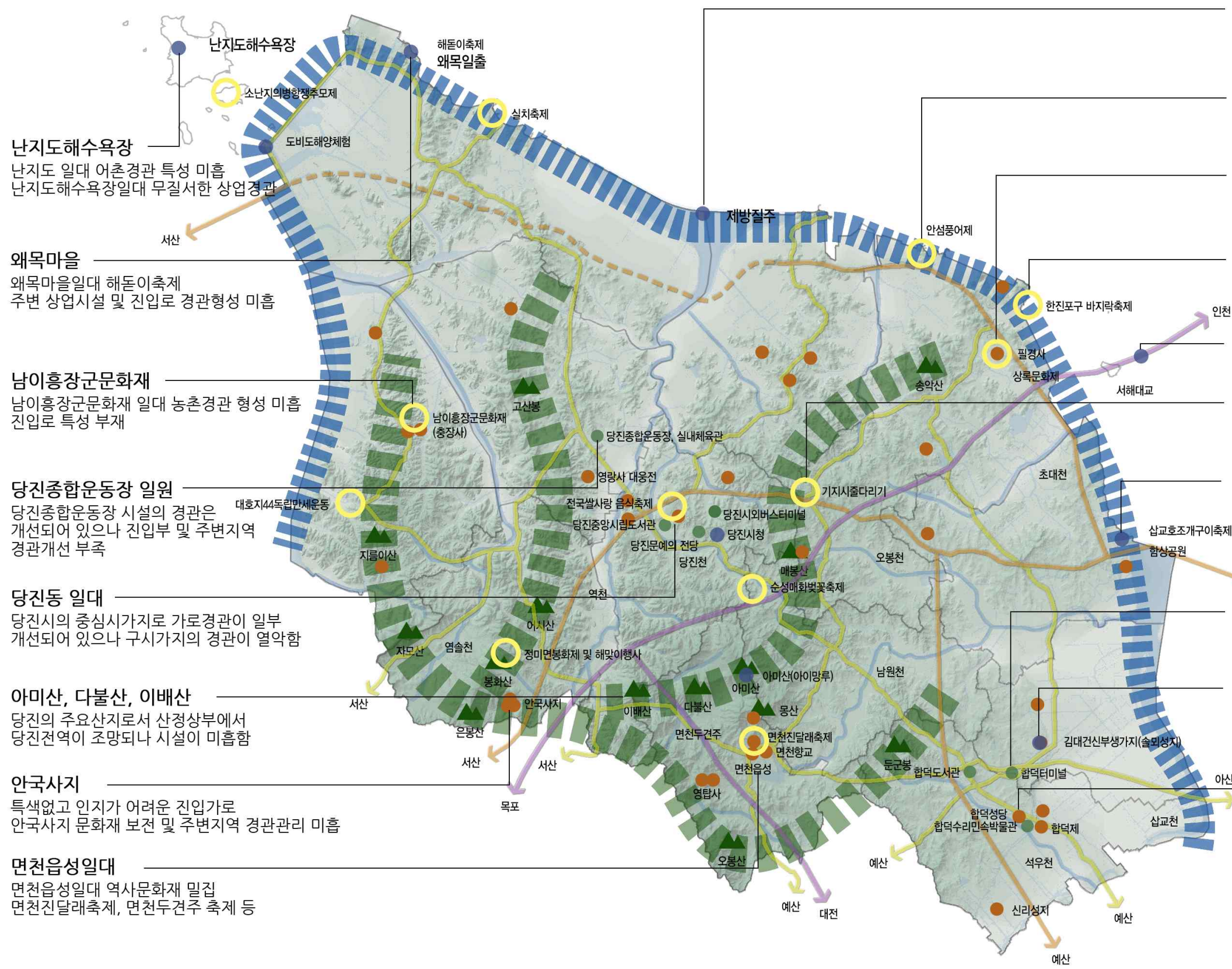
삼교호 함상공원
삼교호함상공원은 관광지로서
삼교호조개구이축제등이 열림
해안조망이 우수함

합덕터미널
합덕터미널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은 무질서한 시가지 경관을 형성함

솔뫼성지
대표적인 천주교성지로서
솔뫼성지 경관은 정비되어 있으나
일대 농촌경관의 정비가 필요함

합덕성당일대
합덕성당, 합덕제,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등이 밀집한 주요한 역사문화지역임

- 범례
- 산
 - 역사문화재
 - 축제
 - 주요시설
 - 산지축
 - 수변축



난지도해수욕장
난지도 일대 어촌경관 특성 미흡
난지도해수욕장일대 무질서한 상업경관

왜목마을
왜목마을일대 해돋이축제
주변 상업시설 및 진입로 경관형성 미흡

남이흥장군문화재
남이흥장군문화재 일대 농촌경관 형성 미흡
진입로 특성 부재

당진종합운동장 일원
당진종합운동장 시설의 경관은
개선되어 있으나 진입부 및 주변지역
경관개선 부족

당진동 일대
당진시의 중심시가지로 가로경관이 일부
개선되어 있으나 구시가지의 경관이 열악함

아미산, 다불산, 이배산
당진의 주요산지로서 산정상부에서
당진전역이 조망되나 시설이 미흡함

안국사지
특색없고 인지가 어려운 진입가로
안국사지 문화재 보전 및 주변지역 경관관리 미흡

면천읍성일대
면천읍성일대 역사문화재 밀집
면천진달래축제, 면천두견주 축제 등

3. 경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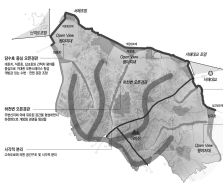
기본방향

- 당진시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경관구조 분석을 위해 당진시의 조망 분석을 진행함
- 분석기준점을 설정하여 가시되는 지역과 가시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고 여러 개의 기준점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중첩하여 당진시의 경관구조 특성을 파악하도록 함
- 여러개의 기준점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상지내의 경관적 중요성, 경관민감지역 등을 파악함

조망분석의 틀

- 경관구조분석 ➡ 예비조망점 선정 ➡ 부감조망영역 추출 ➡ 주요 조망점 선정 ➡ 가시권분석 ➡ 민감지역 도출 ➡ 중점관리조망점의 추출

① 경관구조분석



경관단위 분석을 통한
도시구조 파악

② 예비조망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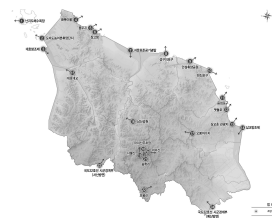
주요 조망점 선정을 위한
예비조망점 선정

③ 부감조망영역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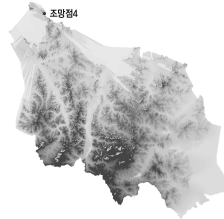
주요 산지에서 보여지는
조망영역범위 설정

④ 주요 조망점 선정



당진시의 주요조망점 선정

⑤ 가시권 분석



민감지역 도출을 위한
주요조망점 기준의 가시권 분석

⑥ 민감지역 도출



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도출

⑦ 중점관리조망점의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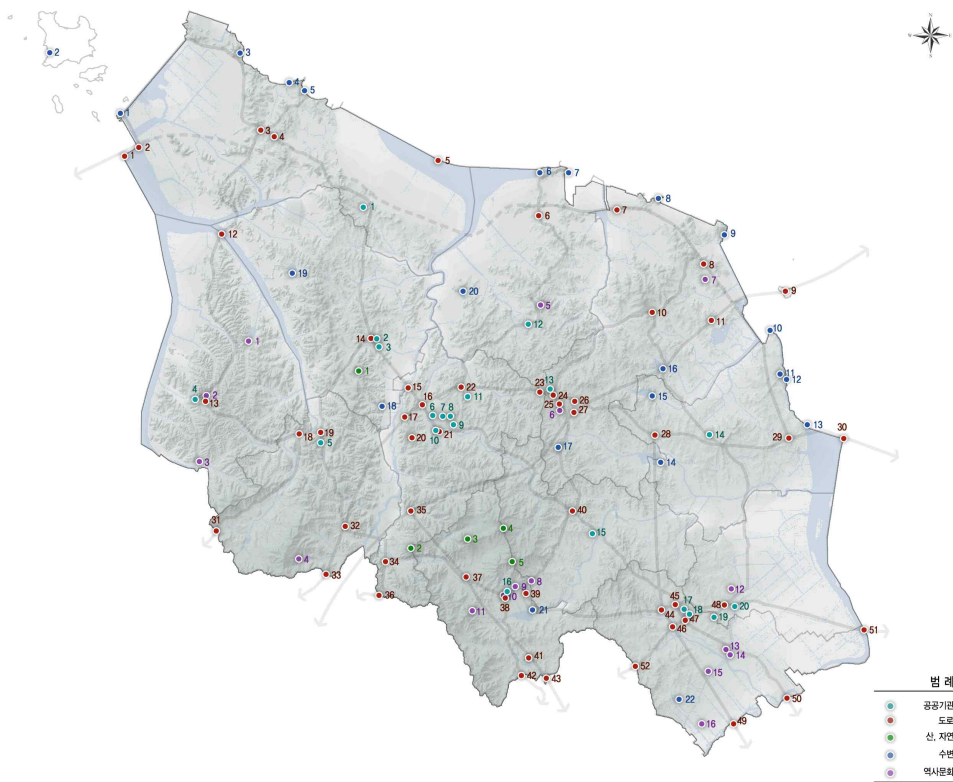


조망분석을 통한
중점관리조망점의 추출

예비조망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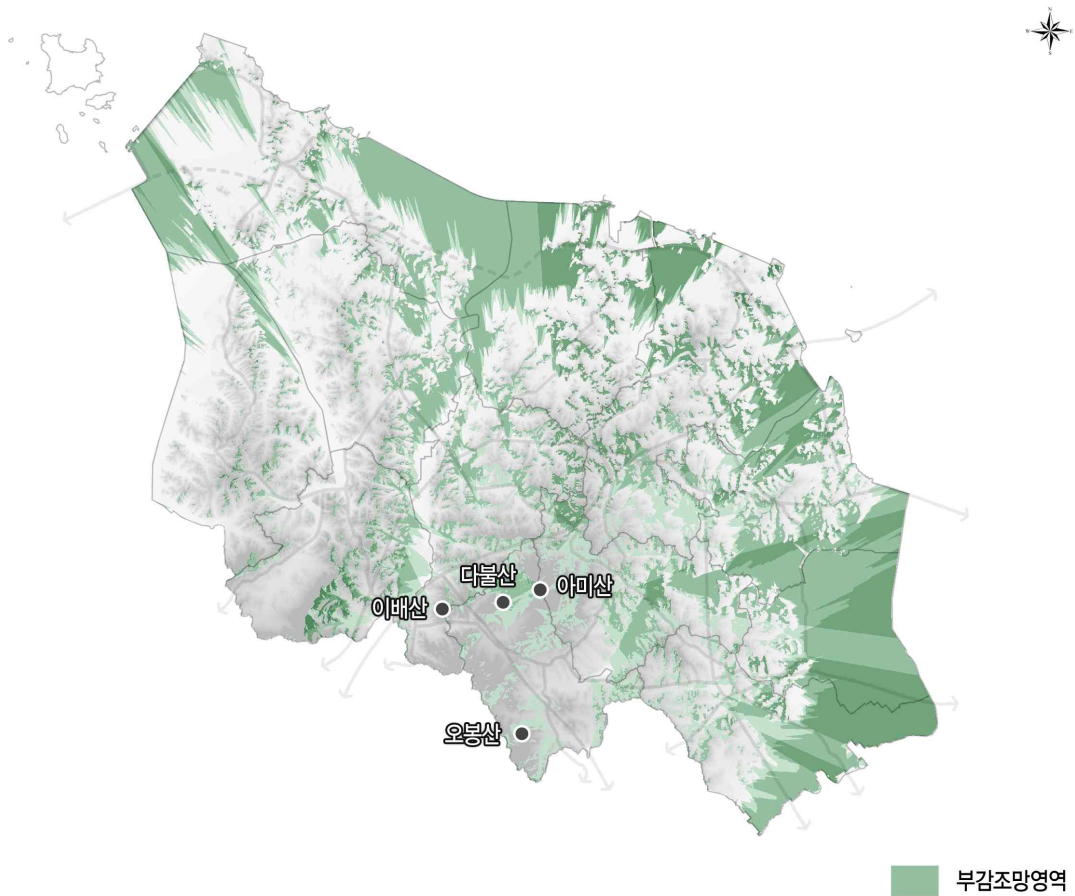
- 주요 도로의 연결점 및 진출입부, 주요 산정상부 및 수목원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관광명소 등의 랜드마크적 장소
-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나 향후 이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연번	공공기관	연번	도로	연번	도로	연번	도로	연번	수변	연번	수변
1	석문면사무소	1	대호방조제	21	행동사거리	41	면천휴게소	1	난지도해수욕장	21	면천저수지
2	고대면사무소	2	대호방조제삼거리	22	원당교차로	42	지방도619 경계부	2	도비도휴양단지	22	백미제저수지
3	당진종합운동장	3	삼봉사거리	23	당진산업단지	43	당진대전고속도로	3	왜목마을	연번	역사문화
4	대호지면사무소	4	삼봉삼거리	24	기지교	44	합덕교차로	4	용무지	1	충장사
5	정미면사무소	5	석문호준공기념탑	25	기지시리교차로	45	합도초교사거리	5	장고항	2	창의사
6	당진시청	6	가곡교차로	26	당진IC삼거리	46	운곡교	6	석문호수열 공원	3	이시경충신정려
7	당진시청중앙도서관	7	현대제철교차로	27	당진TG	47	운곡사거리	7	성구미포구	4	안국사
8	당진문화원	8	한진교차로	28	거산삼거리	48	합덕네거리	8	안섬휴양공원	5	송산회화나무
9	당진문예의전당	9	행담도	29	운정IC교차로	49	국도32시군경계부	9	한진포구	6	기지시줄다리기
10	당진보건소	10	중흥사거리	30	삼교천방조제	50	구양교	10	음섬포구	7	당진필경사
11	당진버스터미널	11	송악TG	31	지방도649 경계부	51	지방도709 경계부	11	맷돌포구석화산	8	복지겸의 묘
12	송산면사무소	12	대호대교	32	사관교차로	연번	산, 자연	12	맷돌포구나루터	9	면천향교
13	송악읍사무소	13	조금삼거리	33	국도32시군경계부	1	삼선산수목원	13	삼교호관광지	10	면천읍성
14	신평면사무소	14	용두교차로	34	구룡삼거리	2	이배산 정상부	14	오봉저수지	11	영탑사
15	순성면사무소	15	채운교	35	당진JC	3	다불산 정상부	15	초대저수지	12	솔피성지
16	면천면사무소	16	탑동교차로	36	지방도647 경계부	4	아미산 정상부	16	전대저수지	13	합덕수리 민속박물관
17	당진시립합덕도서관	17	채운교차로	37	면천TG	5	몽산 정상부	17	송악저수지	14	합덕성당
18	합덕읍사무소	18	송산사거리	38	성상사거리	6	아미산 주차장	18	항공저수지	15	당진합덕제
19	합덕종합터미널	19	천의삼거리	39	구실고개교차로	7	송학리	19	온동저수지	16	신리성지
20	우강면사무소	20	채운사거리	40	봉소사거리			20	고잔저수지		

부감 조망영역

- 주요 봉우리인 아미산, 다불산, 이배산, 오봉산에서 부감 조망영역범위 선정
- 아미산, 다불산에서는 주로 삼교평야, 석문호, 대호지 등 당진시 전역 대부분이 조망됨
- 이배산에서는 주로 정미면 일대의 구릉지와 역천이 조망됨
- 오봉산에서는 삼교평야를 비롯한 당진시 동쪽지역이 조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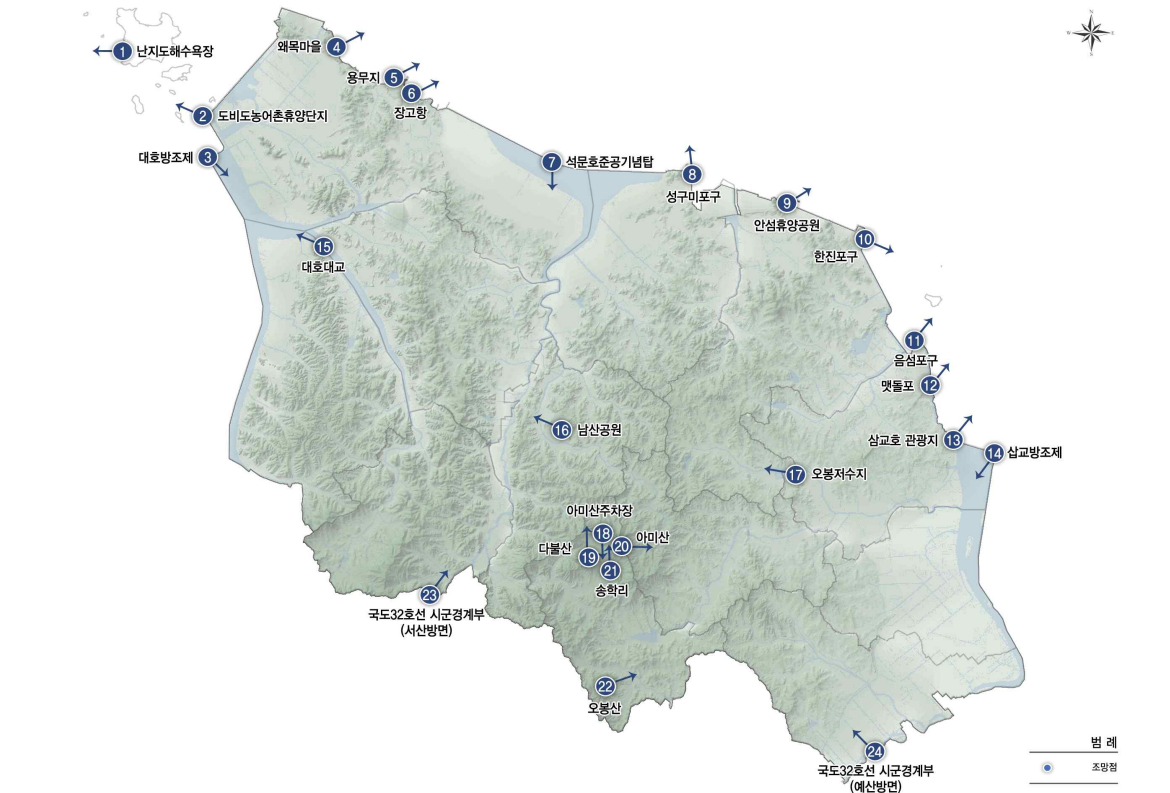


아미산에서 바라본 당진시



주요 조망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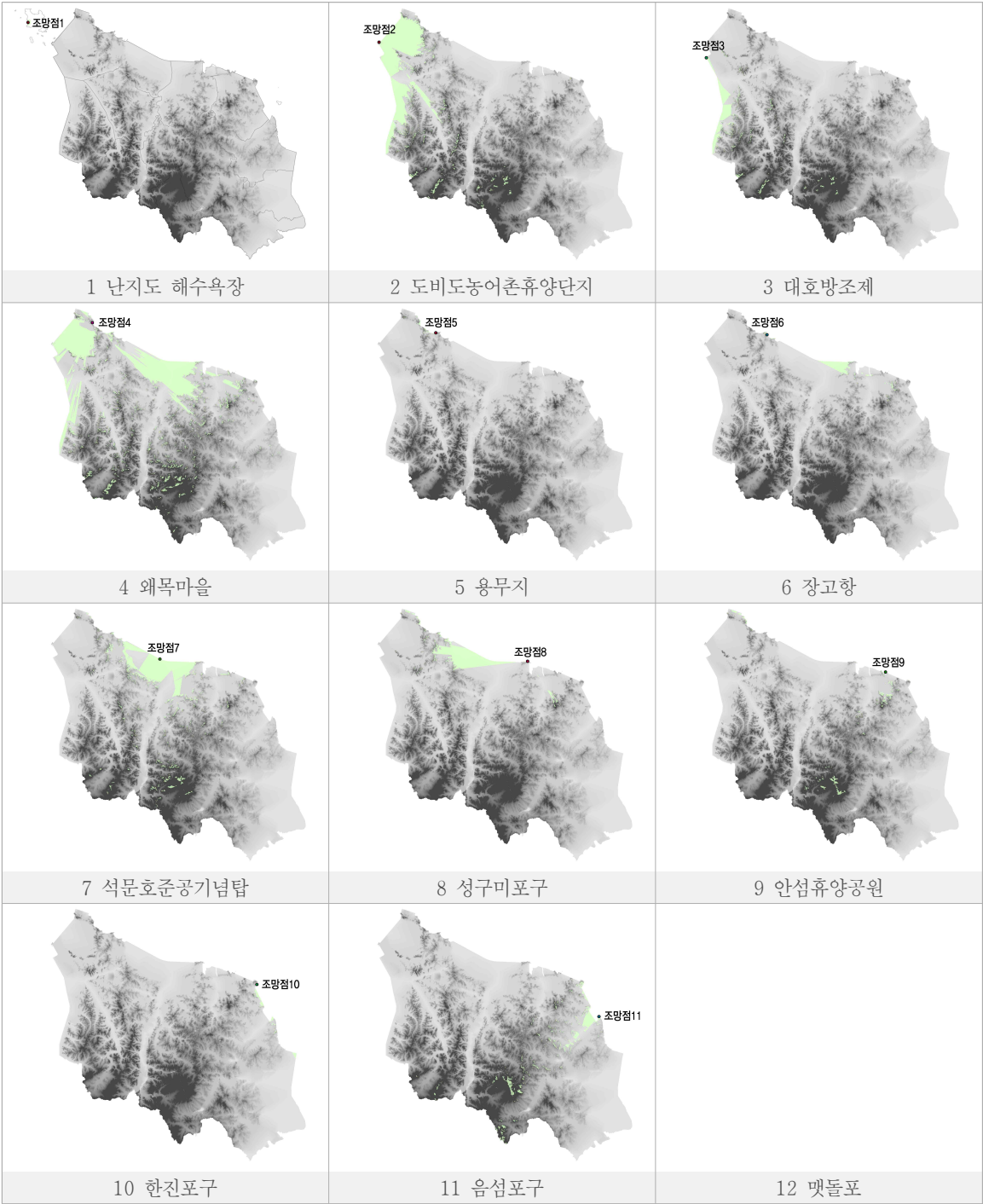
- 예비조망점 분석과 부감조망영역 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점을 선정
- 주요 조망점은 예비조망점 중 부감영역 내 가시비율이 높은 지점들과 해안과 산정상부 조망점을 추출한 것으로 총 24개소를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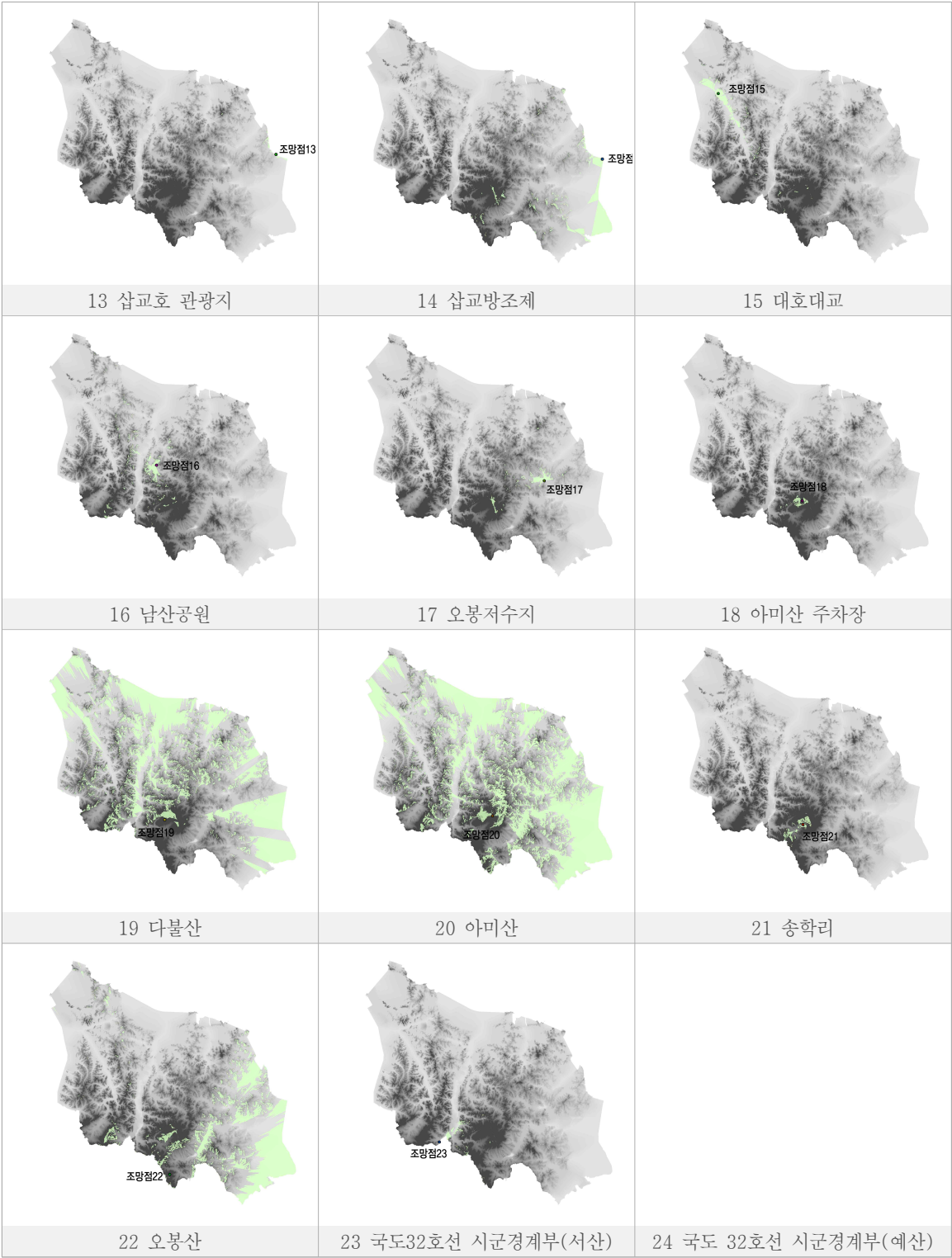


연번	위치	조망대상	연번	위치	조망대상
1	난지도해수욕장	서해	13	삼교호관광지	서해
2	도비도농어촌휴양단지	서해, 도서	14	삼교방조제	삼교호
3	대호방조제	대호지	15	대호대교	대호대교
4	왜목마을	서해	16	남산공원	당진동
5	용무지	서해	17	오봉저수지	오봉저수지
6	장고항	서해	18	아미산 주차장	아미산, 다불산
7	석문호준공기념탑	석문호	19	다불산	당진전역
8	성구미포구	서해	20	아미산	당진전역
9	안섬휴양공원	서해	21	송학리	아미산, 다불산
10	한진포구	서해, 서해대교	22	오봉산	삼교평야일대
11	음섬포구	서해, 서해대교	23	국도32호선 시군경계부(서산)	당진시
12	맷돌포	서해	24	국도32호선 시군경계부(예산)	당진시

가시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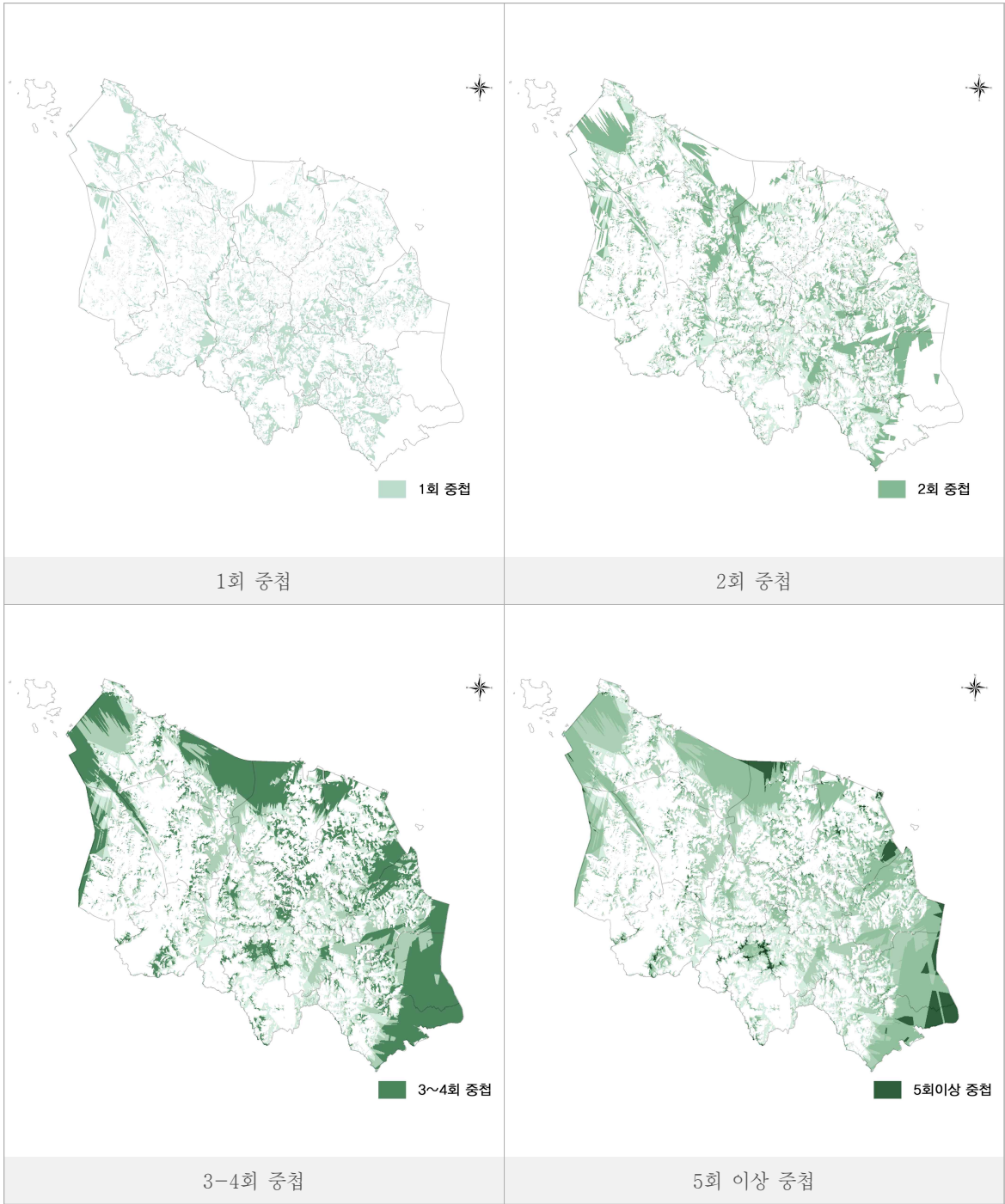
- 주요 조망점 24개에 대한 가시권 분석을 실시함
- 분석결과 아미산, 다불산, 오봉산 등 주요 산지의 가시빈도가 가장 높음
- 대호지, 석문호, 삼교호 주변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높은 가시율을 보임
- 해안의 조망점은 중근경의 해안지역이 가시됨
- 국도 32호선 진입부에서는 진입도로변의 농경지와 주변 농촌지역이 가시됨





민감지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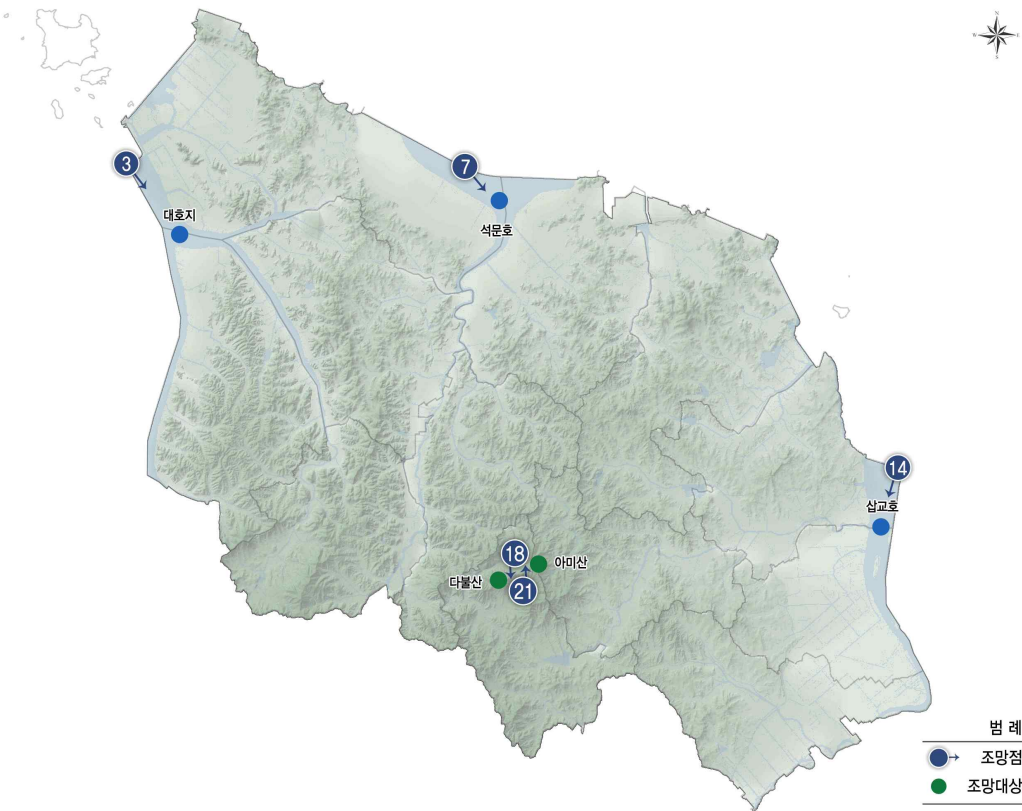
- 민감지역의 중첩을 통해 당진시 내의 경관적 중요성, 경관민감지역 등을 파악함
- 아미산, 다불산이 민감도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삼교호, 석문호, 대호지 주변으로 민감도가 높음



중점관리조망점

- 중점관리조망점은 주요 조망점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지점들을 추출한 것으로 경관상 관리되어야 할 주요 지점들임

조망점	구 분	조망대상	중점관리조망점 활용방안
3	대호방조제	대호지	대호방조제에서 대호지를 조망하는 개방형 대호지 주변의 건축물은 대호지와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7	석문호준공 기념탑	석문호	석문호준공기념탑 녹지대에서 석문호를 조망하는 개방형 석문호 주변의 건축물은 석문호 건축물은 석문호와 조화롭도 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14	삼교방조제	삼교호	삼교방조제에서 삼교호를 조망하는 개방형 삼교호 주변의 건축물들은 삼교호와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 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18	아미산주차장	아미산, 다불산	아미산주차장에서 아미산, 다불산을 조망하는 조망형 통경구 간 설정 통경구간 내 건축물은 아미산, 다불산과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21	송학리	아미산, 다불산	송학리에서 아미산, 다불산을 조망하는 조망형 통경구간 설정 통경구간 내 건축물은 아미산, 다불산과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재질, 색채 등 관리



4. 경관의식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및 기간

- 당진시의 개성적인 경관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관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및 주민의식을 파악하여 경관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1년 2월14일~3월7일(20일간)

조사대상

- 총 750부를 배포하여 539부 회수(71.9%)
- 유효부수 492부 중에 일반주민 350부(71.1%), 공무원 142부(28.9%)임

조사방법

- 직접배포 및 회수(면접조사 및 배포후 회수 병행)
- 일반주민 : 인구구조와 지역별 형평성 고려, 읍면별 인구수 비례하여 설문 실시
(특히, 면단위에서는 경관에 관심이 있는 이장 등 마을 리더자 중심)
- 공 무 원 : 경관관련 부서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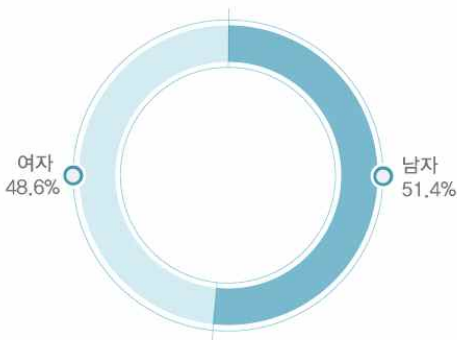
조사내용

- 설문조사서는 주민 특성별 경관의식 분석을 위한 응답자 일반사항(5), 경관의 미래상 및 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대표경관 및 이미지(5), 경관의 문제점 및 만족, 중요도 중심으로 경관유형별 현황(12), 개선과제 및 추진주체 등을 위한 경관관리(4), 경관사업 및 협정을 위한 주민의지 파악을 위한 주민참여(3) 부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됨

구분	일반사항	대표경관 및 이미지	경관유형별 현황	경관관리	주민참여
설문 목적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미래상 설정 - 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우선순위 도출 - 경관골격, 경관단위 설정 - 중점관리대상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리 추진주체 - 경관관리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주민의 참여의지
설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직업 - 거주지 -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대표경관 - 경관이미지 - 현재 및 미래 이미지 - 색채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만족도 - 유형별 중요도 및 우선 - 유형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리 필요성 - 경관관리 위한 개선과제 - 경관사업 추진방식 - 공공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의사 - 내용별 참여정도 - 기타의견
문항수 (24)	5문항	5문항	12문항	4문항	3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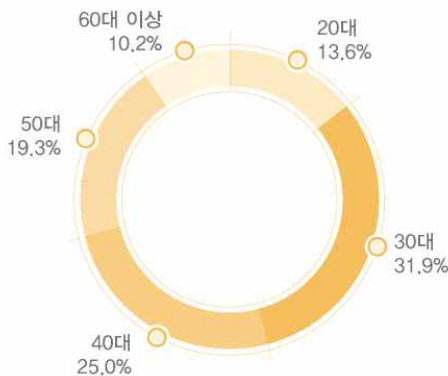
일반사항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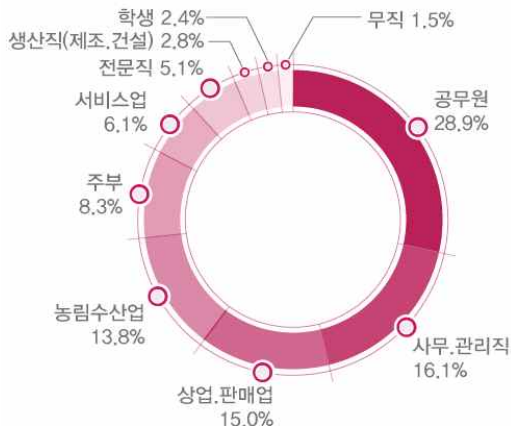
- 남자 51.4%로, 여자 48.6% 보다 약간 높은 비율 차지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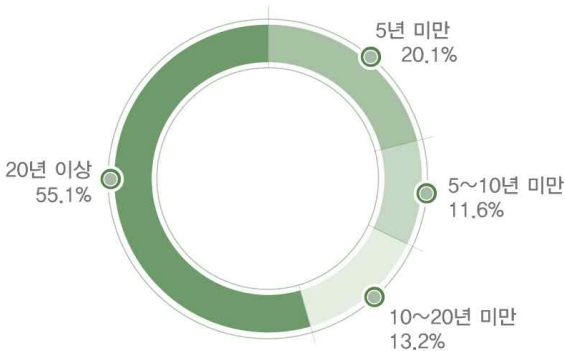
- 30대 31.9%, 40대 25.0%, 50대 19.3% 등 고르게 분포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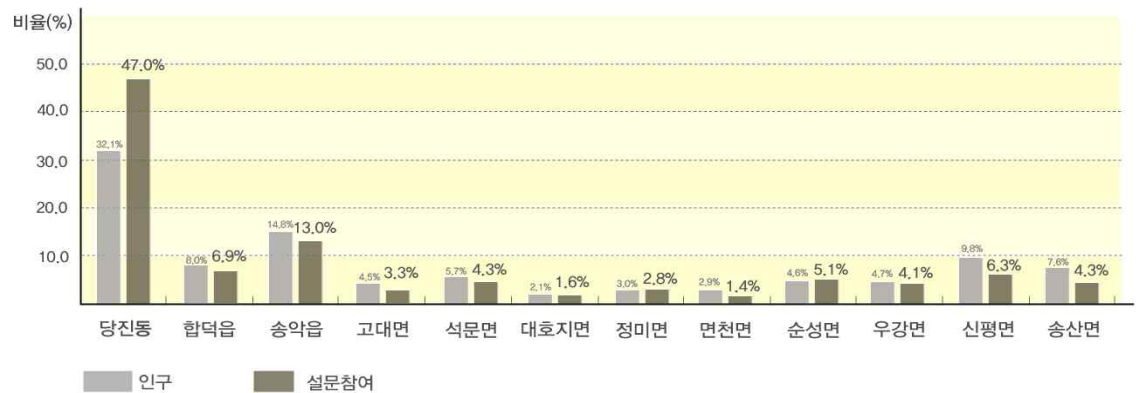
- 공무원 28.9%, 사무.관리직 16.1%, 상업.판매업15.0% 등

거주기간



- 20년 이상 55.1%로 높은 비율 차지

거주지(읍면별)



- 전체 응답자 중에 당진동 거주자가 47.0%로 인구대비 높은 비중 차지, 나머지 읍면 인구수 대비 고른 참여

대표경관 및 도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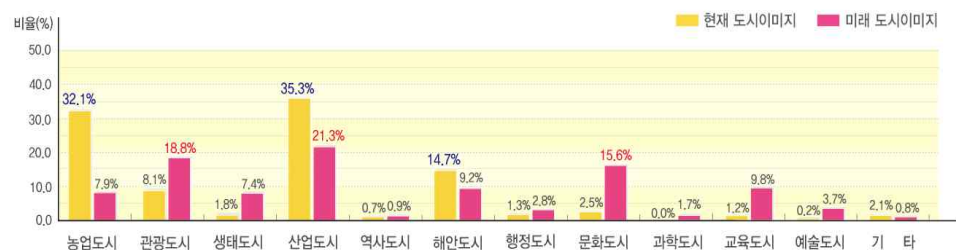
대표경관

- 당진시의 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는 ‘서해대교’ 31.0%, ‘왜목마을’ 30.3%로 압도적이며, 그 다음으로는 ‘삼교호 함상공원 8.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7.2%가 나타남
- 서해대교는 당진시의 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는 당진시 발전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며, 왜목마을은 서해안 일출의 장관을 연출하며 당진의 대표적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인식 속에 당진시의 대표경관으로 자리매김함
- 그러나, 솔피성지 및 주변 4.5%,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및 주변 2.1%, 면천읍성 1.1%, 필경사 0.5% 등의 역사문화 경관자원에 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와 미래의 도시이미지

- 당진시의 현재 이미지는 산업도시(35.3%)와 농업도시(32.1%)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하여 새로운 산업도시 이미지와 서남부 농업기반의 전통적 농업도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음
- 미래의 주요 이미지는 산업도시(21.3%), 관광도시(18.8%), 문화도시(15.5%)의 순이며, 이외에도 교육도시(9.8%)와 해안도시(9.2%) 등이 뒤를 이으며 앞으로 당진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도시이미지(형용사)

- 당진시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단어(형용사)로 나타내어 본 결과, 도시의 규모성에 관해서는 ‘소박한-거창한’이 보통 53%, 소박 22.6%이며, ‘정적인-동적인’이 보통 41%, 동적 26.4%로 다소 소박하면서 동적인 느낌의 도시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음
- 도시의 정결성에 관해서는 ‘지저분한-깨끗한’이 보통 47.6%, 지저분 22.6%이며, ‘분주한-여유로운’이 보통 47.6%, 분주 24.8%, 여유 23.0%로 약간 지저분하면서 분주함과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도시이미지가 나타남

- 도시의 선호성에 관해서는 ‘싫은-좋은’이 보통 51.0%, 좋은 21.1%이며, ‘삭막한-푸근한’이 보통 44.3%, 푸근 21.3%로 다소 푸근하며 좋은 느낌의 도시이미지가 나타남
- 도시의 문화성에 관해서는 ‘비문화적인-문화적인’이 보통 37.2%, 비문화적 30.5%이며, ‘불편한-편리한’에서도 보통 35.6%, 비문화적 32.1%로 다소 비문화적이며 불편한 도시이미지가 나타남
- 도시의 발전성에 관해서는 ‘정체된-변화하는’에서 매우변화 21.3% 변화 36.2%로 변화하는 도시이미지가 압도적이며, 도시의 시간성에 관해서는 ‘오래된-새로운’에서 보통 39.0%, 새로운 29.7%로 전통도시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이미지가 나타남

구분	경관형용사	←-----		보통	-----→		경관형용사
1) 규모성	소박한	11.4	22.6	53.0	11.0	2.0	거창한
	정적인	5.9	16.9	41.1	26.4	9.8	동적인
2) 정결성	지저분한	7.7	22.6	47.6	15.2	6.9	깨끗한
	분주한	8.3	24.8	35.0	23.0	8.9	여유로운
3) 선호성	싫은	4.1	12.2	51.0	21.1	11.6	좋은
	삭막한	5.5	18.7	44.3	21.3	10.2	푸근한
4) 문화성	비문화적인	13.6	30.5	37.2	12.6	6.1	문화적인
	불편한	15.7	32.1	35.6	10.6	6.1	편리한
5) 발전성	정체된	3.0	14.4	25.0	36.2	21.3	변화하는
6) 시간성	오래된	5.3	17.1	39.0	29.7	8.9	새로운

색채이미지

- 당진시의 색채이미지로는 주로 초록색(40.7%), 파랑색(23.6%)가 나타나, 당진시의 현재 도시이미지인 농업도시와 산업도시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경관유형별 만족도 및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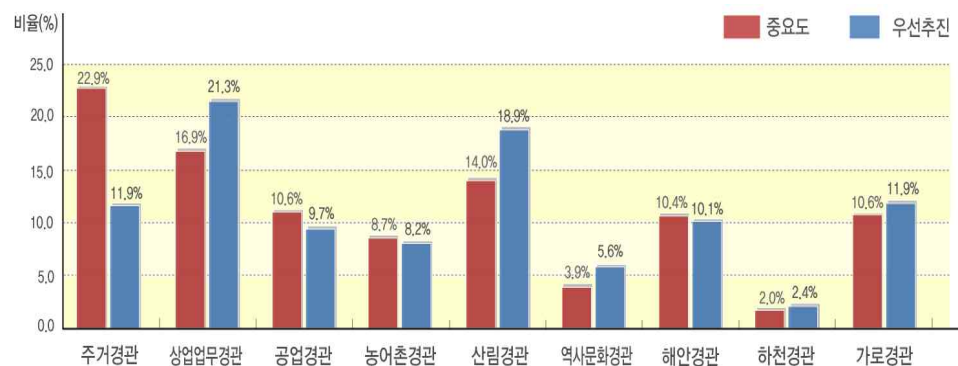
경관 만족도

- 만족도가 높은 경관유형으로는 농어촌경관(매우만족3.3%, 만족28.3%), 해안경관(매우만족4.1%, 22.0%), 산림경관(매우만족2.2%, 만족23%)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자연경관에 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만족도가 낮은 경관유형으로는 상업·업무경관(매우불만7.3%, 불만35.2%), 하천경관(매우불만6.1%, 불만30.7%), 가로경관(매우불만6.1%, 불만28.0%)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경관 중요도 및 우선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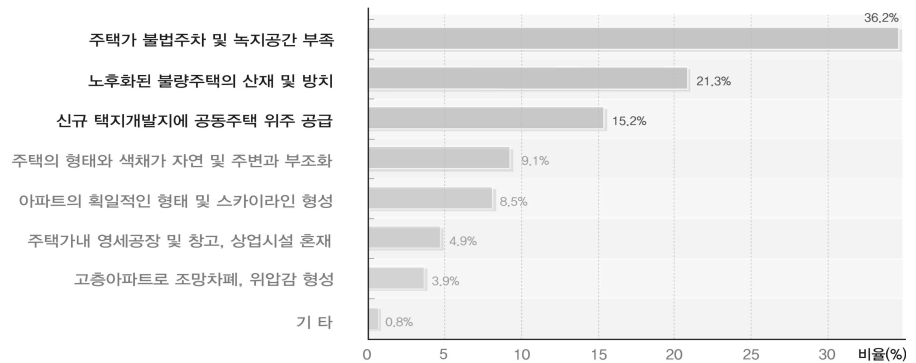
- 당진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도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경관(23.0%)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상업·업무경관(16.9%), 산림경관(14.0%)의 순으로 나타남
- 당진시의 경관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문으로는 상업·업무경관(21.1%), 산림경관(1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요도와 우선추진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상업·업무경관을 도시의 중심지가 지로서 당진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림경관은 도로개설 및 도시개발 등으로 자연의 산림경관이 훼손되는 것에 관한 우려가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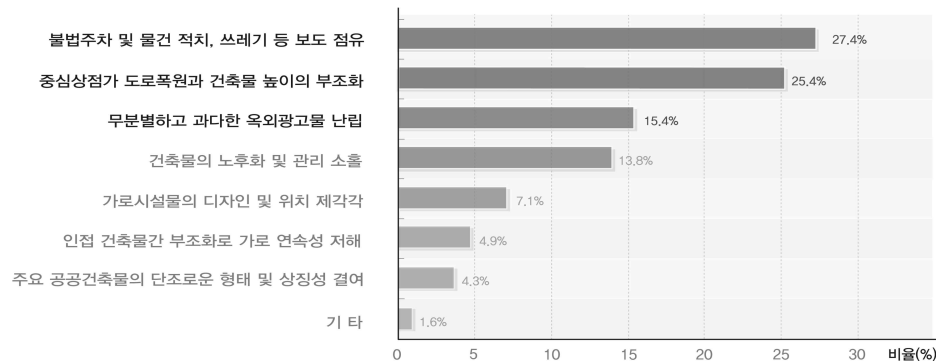
경관유형별 문제점

시가지경관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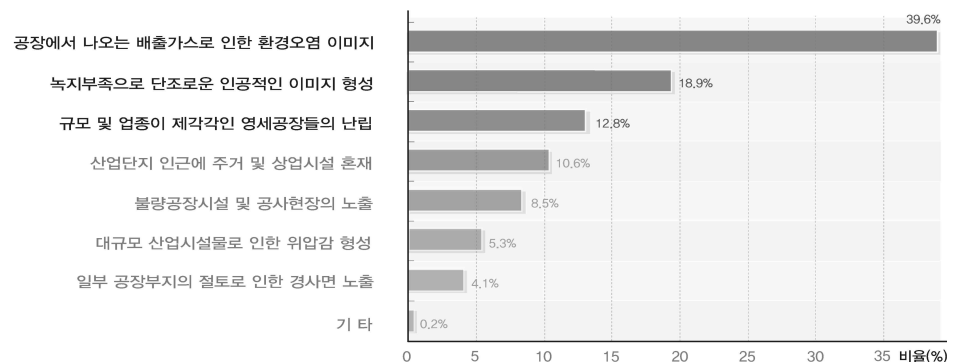
- 주거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주택가 불법주차 및 녹지공간 부족(36.2%)’, ‘노후화된 불량주택의 산재 및 방치(21.3%)’, ‘신규 택지개발지의 공동주택 위주 공급(15.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업·업무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불법주차 및 물건 적치, 쓰레기 등의 보도 점유(27.4%)’, ‘중심상점가 도로폭원과 건축물 높이의 부조화(25.4%)’, ‘무분별하고 과도한 옥외광고물 난립(15.4%)’, ‘건축물의 노후화 및 관리 소홀(13.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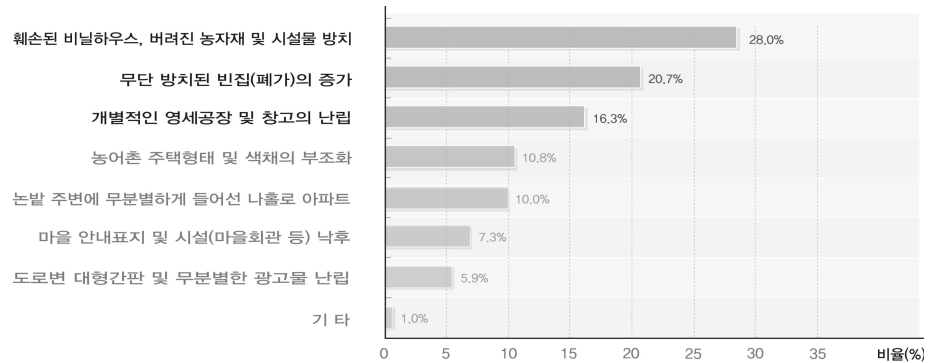


- 공업(산업)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39.6%)’, ‘녹지부족으로 단조로운 인공적 이미지 형성(18.9%)’, ‘규모 및 업종이 제각각인 영세공장들의 난립(12.8%)’,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 및 상업시설 혼재(1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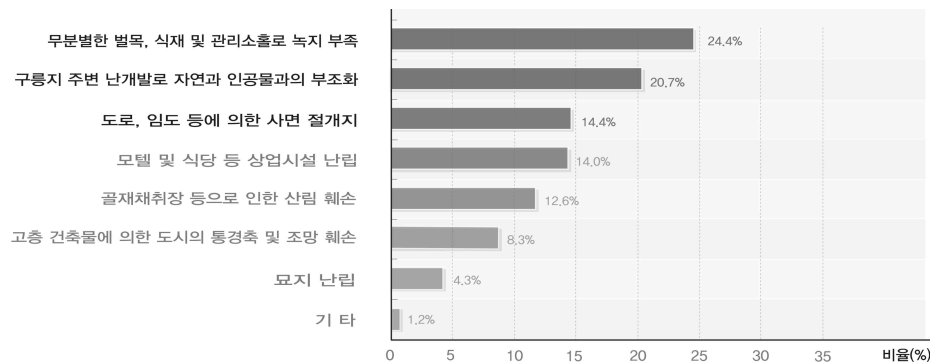


농어촌경관 및 산림경관의 문제점

- 농어촌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무단 방치된 빈집(폐가)의 증가(20.7%)’, ‘개별적인 영세공장 및 창고의 난립(16.3%)’, ‘농어촌 주택형태 및 색채의 부조화(10.8%)’, ‘논밭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나홀로 아파트(1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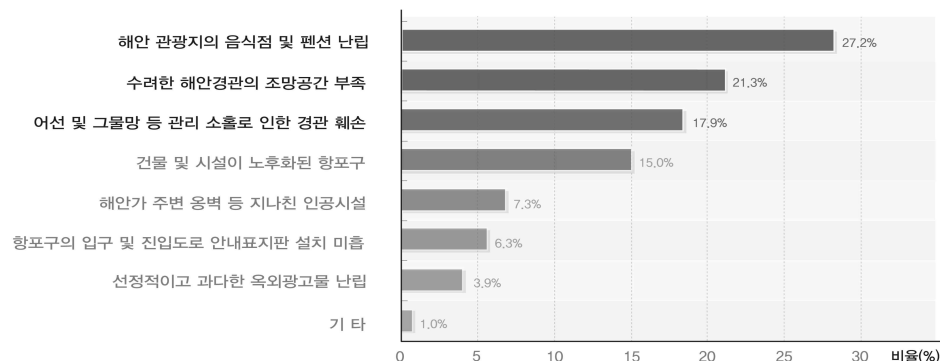


- 산림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무분별한 벌목, 식재 및 관리소홀(24.4%)’, ‘구룡지 주변 난개발로 자연과 인공물과의 부조화(20.7%)’, ‘도로 및 임도에 의한 사면 절개지(14.4%)’, ‘모텔 및 식당 상업시설 난립(14.0%)’, ‘골재채취로 인한 산림훼손(1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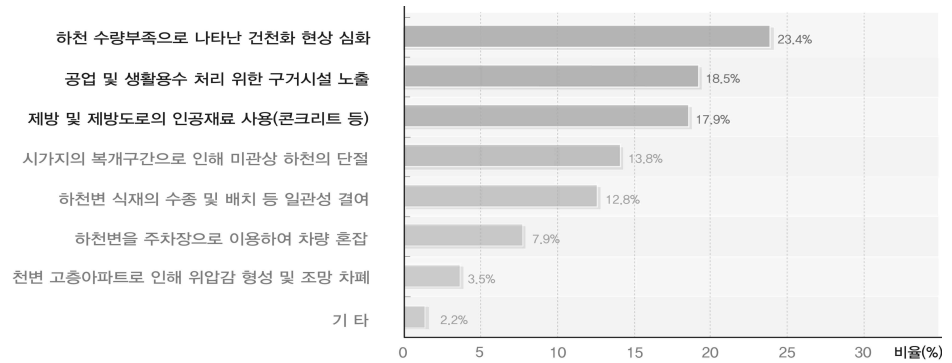


수변경관의 문제점

- 해안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해안 관광지의 음식점 및 펜션 등 상업시설 난립(27.2%)’, ‘수려한 해안경관의 조망공간 부족(21.3%)’, ‘어선 및 그물망 등 관리소홀로 인한 경관 훼손(17.9%)’, ‘건물 및 시설이 노후화된 항포구(1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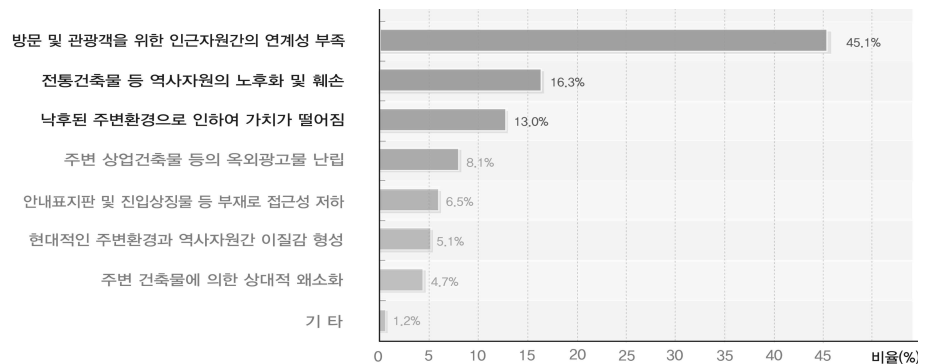


- 하천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하천의 수량부족으로 나타난 건천화 현상 심화(23.4%)’, ‘공업 및 생활용수 처리 위한 구거시설 노출(18.5%)’, ‘제방 및 제방도로가 인공적인 석축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17.9%)’, ‘시가지의 하천복개로 인한 하천의 단절(13.8%)’, ‘하천변 식재의 수종 및 배치 등 일관성 결여(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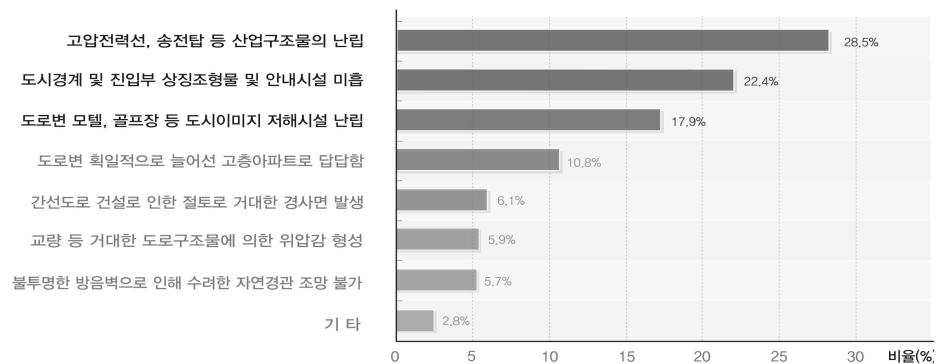


역사문화경관 및 가로경관의 문제점

- 역사문화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방문 및 관광객을 위한 인근 자원간의 연계성 부족(45.1%)’, ‘전통건축물 등 역사자원의 노후화 및 훼손(1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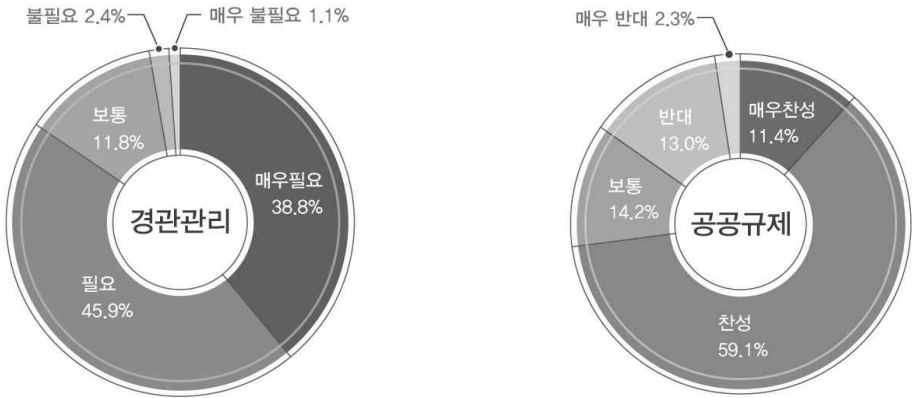
- 가로(도로)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고압전력선, 송전탑 등 산업구조물의 난립(28.5%)’, ‘도시 경계 및 진입부 상징조형물 및 안내시설의 미흡(22.4%)’, ‘도로변 모텔, 골프장 등 도시이미지 저해시설 난립(17.9%)’, ‘도로변 획일적인 고층아파트로 인한 압박감(1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경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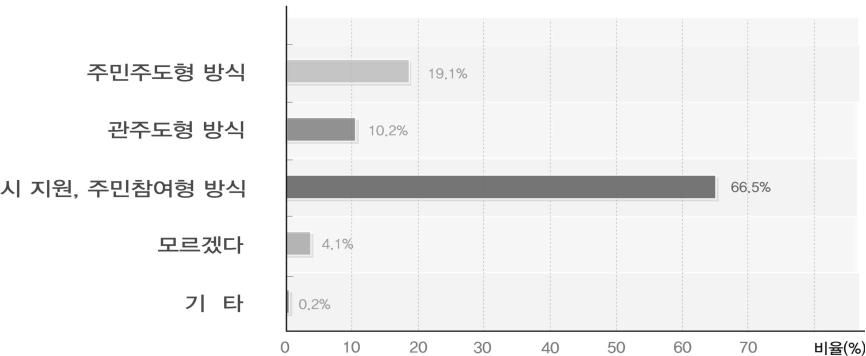
경관관리의 필요성 및 공공규제

-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다(매우필요38.9%, 필요45.9%)’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매우불필요1.0%, 불필요2.4%)’는 의견보다 절대적임
-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규제에 관하여는 ‘찬성한다(매우찬성11.4%, 찬성59.1%)’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나, ‘모르겠다(11.4%)’ 및 ‘반대한다(매우반대2.2%, 반대13.0%)’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음
- 당진시 차원에서 경관관리에 관하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대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일부 규제가 수반될 수 있는 공공규제에 관하여는 반대의견 및 모르겠다는 의견도 다소 있기 때문 경관사업 추진시 주민반발 등의 가능성도 엿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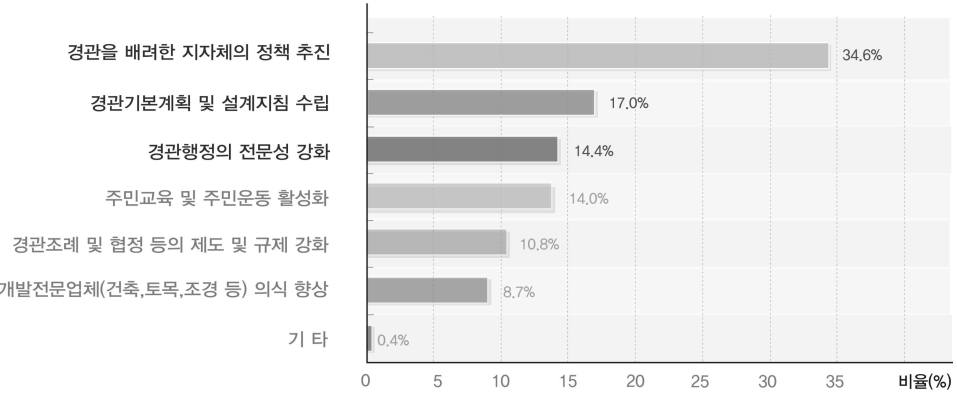


사업추진방식 및 시급한 개선과제

- 사업추진방식에 관하여는 시에서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시지원, 주민참여형 방식’이 6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형 방식’에도 19.1%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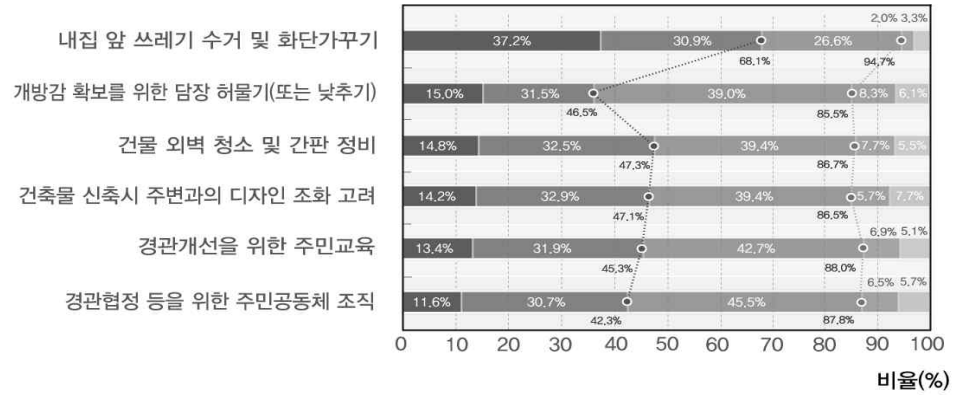
- 경관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경관을 배려한 지자체의 정책 추진’ 34.6%, ‘경관기본계획 및 설계지침 수립’ 17.1%, ‘경관행정의 전문성 강화’ 14.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요 추진주체가 행정중심의 과제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주민참여의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시급한 개선과제에 있어 주민참여가 필요한 과제(주민교육 및 주민운동 활성화 14.4%)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주민참여

주민의 참여의사

- 당진시 경관계획의 수립 후 계획실현에 관한 주민의 참여의사(종합)는 ‘적극적 참여’ 18.3%, ‘가능한 참여’ 40.4% 로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가 대체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필요시 참여’ 의사를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가 35.0%이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내용별 의사에서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사업 추진시 원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참여내용 중에 ‘내집 앞 쓰레기 수거 및 화단가꾸기’ 만이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가 절반(적극적 참여 37.2%, 가능한 참여30.9%)을 넘고 있을 뿐, 개방감 확보 위한 ‘담장 허물기 및 낮추기’, ‘건물외벽 청소 청소 및 간판정비’ 등의 내용에서는 소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음



의식조사 종합

도시이미지 및 대표경관

- 현재의 당진시는 농업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교육, 예술 등의 고품격 도시이미지로서 변모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보이므로, 다양한 경관 창출이 요구됨
- 당진시의 대표경관으로 압도적인 왜목마을 및 서해대교와 그 외에 선택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삼교호 합상공원 등이 당진시를 대표하는 장소로서 해안가 중심으로 형성, 해안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됨

경관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및 해안, 산림 등 자연경관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상업업무, 하천, 가로 등 도시화된 지역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인공물의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상업업무경관은 만족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중요도 및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이 높게 나타나 경관개선이 시급, 문제점으로는 불법주차 및 보도점유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관리 강화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경관관리 및 주민참여

- 시차원의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사업추진시 시지원·주민참여형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시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냄
- 그러나 관리를 위한 공공규제에 대하여 반대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다소 나타나고, 전체적인 주민참여의사가 높는데 반하여 참여내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의 실제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식 및 참여내용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함

5. 관련법규 및 계획

관련법규

경관법

- 지자체에서 경관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근거법이자 지원법으로서의 역할 담당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로 구성되며, 규제기준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제도와 연계성을 통해 규제유도협정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경 관 법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제2장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함 (제6조) -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함 (제8조 제3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0조 제1항) -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제11조 제1항)
제3장 경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사업대상(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제15조 제1항)
제4장 경관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을 경관협정 체결자의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음. 체결시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 등에게만 미침(제16조 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제5장 경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 단,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제23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받아야할 사항(제24조 제1항) : 경관계획의 수립·변경·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그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사항 - 경관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할 사항(제24조 제2항) : 경관계획,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조례의 제정,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타 관련법규

구 분	주 요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 반영,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 창조 및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관련 조례(2011년)

-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의 기타 조례에서도 개발행위 시 경관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당진시는 경관관련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운영함

구 분	근거법	충청남도	당진시
경관조례	경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경관사업의 대상 및 추진협의체 구성, 경관사업 재정지원, 경관시범지역 지정,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의 관리,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경관사업 대상 및 추진협의체 구성,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경관협정 및 지원,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추진기구 및 개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 개발행위의 허가,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군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및 기준완화 등,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 공개공지 등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조례	건축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미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의 설치 및 관리, 이용시간 및 대상, 관리위탁, 점용허가, 시설의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재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정문화재의 정의 및 지정, 관리 및 보호, 공개,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미제정
공공디자인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진흥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업무협약,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미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지원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안전도검사, 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교육, 광고물 설명제 및 행·재정 지원,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경관관련 지역·지구·구역

- 국제법을 비롯한 경관관련 법률에서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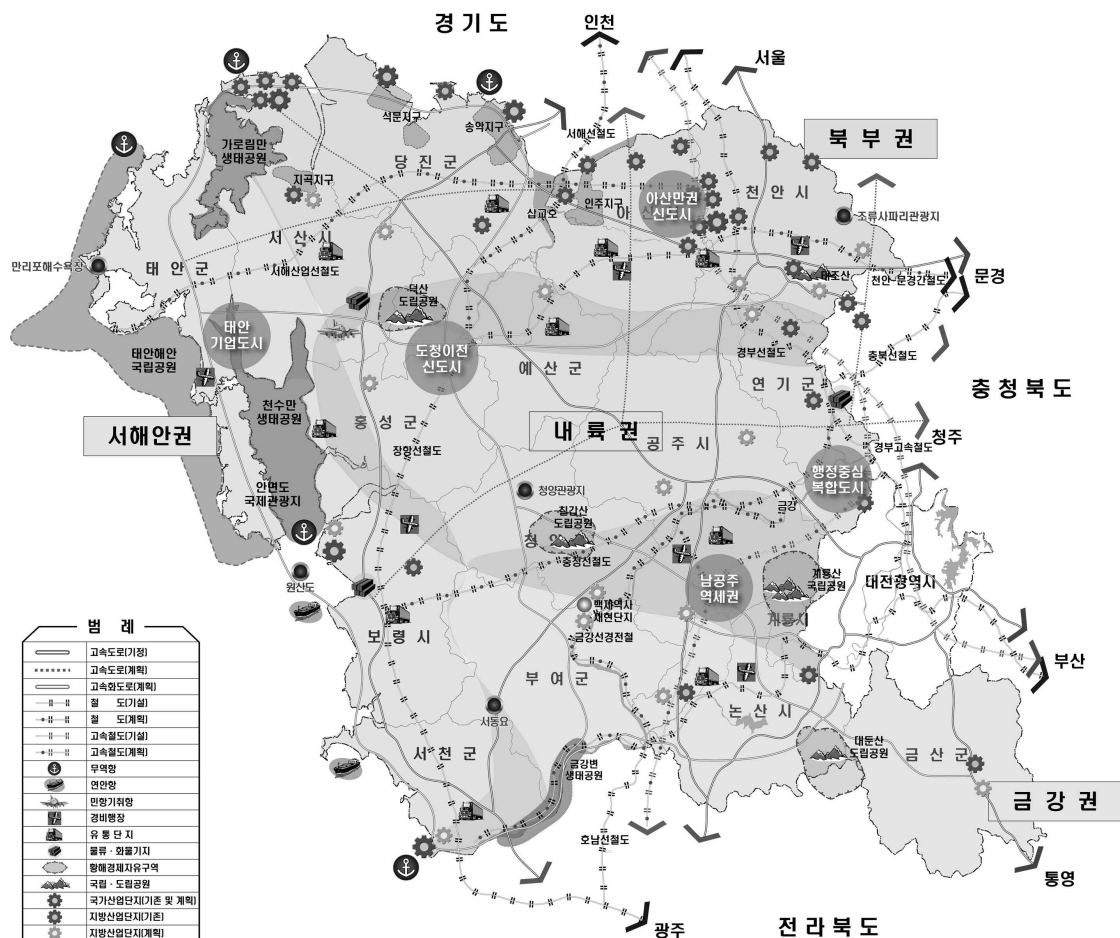
구분	근거법	내용	규제사항
경관지구 (자연/수변 /시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경관을 보호·형성 위하여 필요한 지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제한 등
미관지구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최고/최저)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 /중요시설 /생태계)		-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원자연보존 지구	자연공원법	-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허용되는 행위 별도로 규정
공원자연환경 지구		- 자연보존지구를 위한 완충지역	
생태·경관보전 지역 (핵심/완충 /전이구역)	자연환경 보전법	-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태·전지역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건축행위 제한 등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 보호	

상위 및 관련계획

상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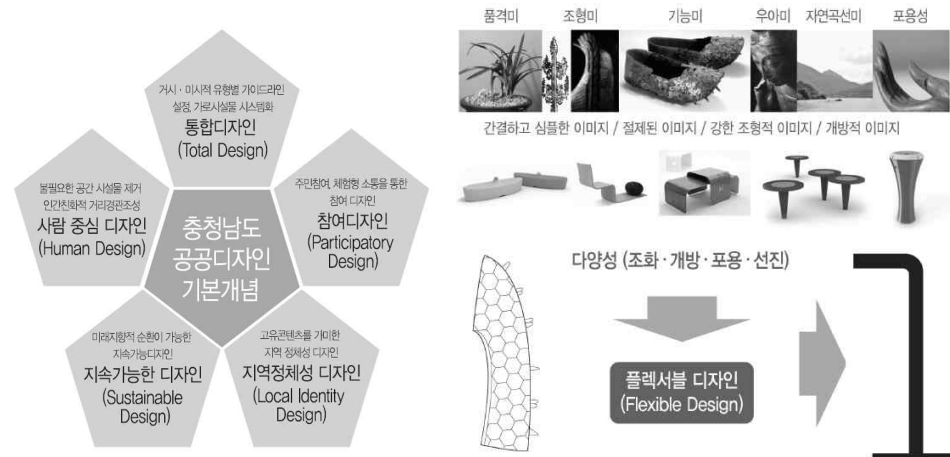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계획기조로,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목표로 설정
-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 협력과 제휴의 지역생활권 형성으로 공간구조 설정
- 당진시는 발전축에 있어 북부축과 중부내륙축, 4개 개발경영권 중에는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및 충청권의 신성장 거점지대 추구하는 북부권, 지역생활권에는 서산, 태안과 함께 북부해안권에 속함
- 부문별 계획으로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이 있음
- 당진시의 발전방향은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로서, 역동적인 수출 지향적 임해 신산업지대,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물류유통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체형 휴양 및 여가의 중심지를 기본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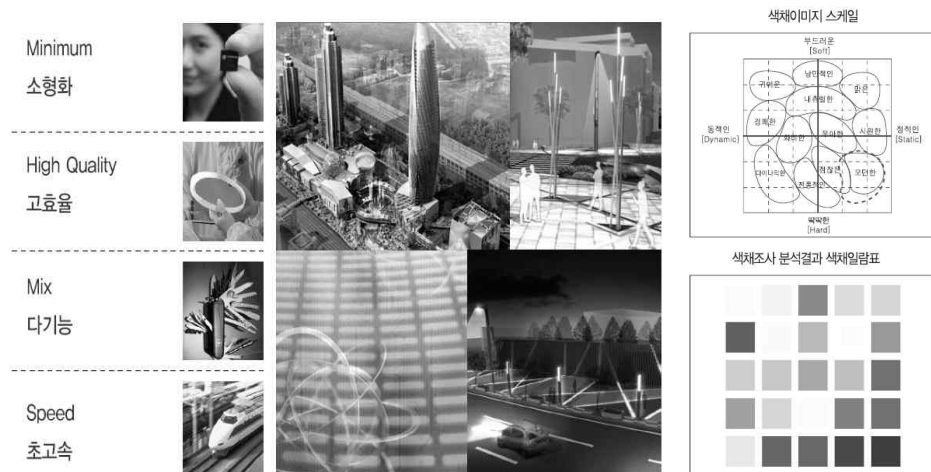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09)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계획을 통해 충남의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을 강화,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수립함
- 충남의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은 통합디자인(Total Design), 사람중심디자인(Human Basic Design), 참여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지역정체성디자인(Local Design)의 5가지임
- 역사문화, 정신, 자연, 미래 등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도출된 충남의 디자인 특화개념으로는 포용과 조화, 융합과 개방을 포괄하는 '다양성'으로 정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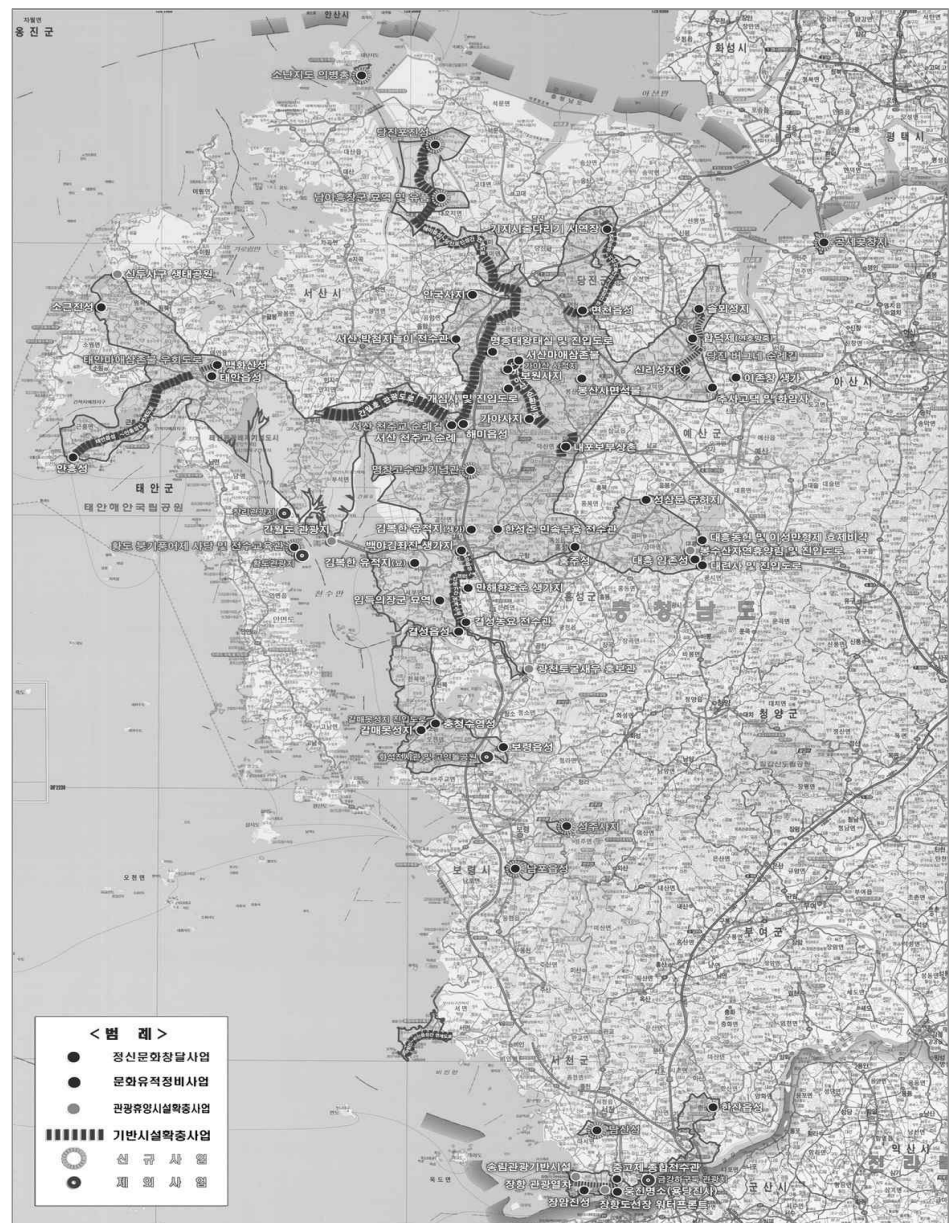


- 충남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이미지를 도출,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차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당진이 포함된 북부권은 천안, 아산과 함께 첨단정보산업의 산업중심지역으로 미래지향적, 첨단적 이미지이며, 상징색채로는 은회색인 무채색계열의高明도 색채가 선정됨
- 당진의 상업중심가로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정체성, 기능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항목 대부분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개선방향으로는 공공공간의 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 매체의 통합형 디자인으로 개선 등이 제시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기준을 규정한 지침서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한정되며. 공공공간에는 도로, 광장, 공원, 하천 등의 야외공간과 주차장, 공개공지 등의 기반시설공간, 공공시설물에는 편의시설, 공급시설, 교통시설 등에 적용됨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2004)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조성을 목표로 지역내에 유무형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보존정비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추진
-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자원을 관광상품화하며, 지역의 문화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21세기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중점 육성
- 보령·아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 등에 이르는 내포문화권 개발은 최초의 서민·종교문화권 육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당진, 송악, 고대, 대호지, 면천, 석문, 순성, 우강, 정미가 포함됨
- 당진시는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솔피성지 성역화, 안국사지 발굴 정비, 면천읍성 정비, 함덕재 정비, 남이항장군묘역 및 유품정비, 소난지도 의병충 주변정비, 당진포진성 정비, 당진 버그네 순례길 등이 포함됨



관련계획

2025 당진군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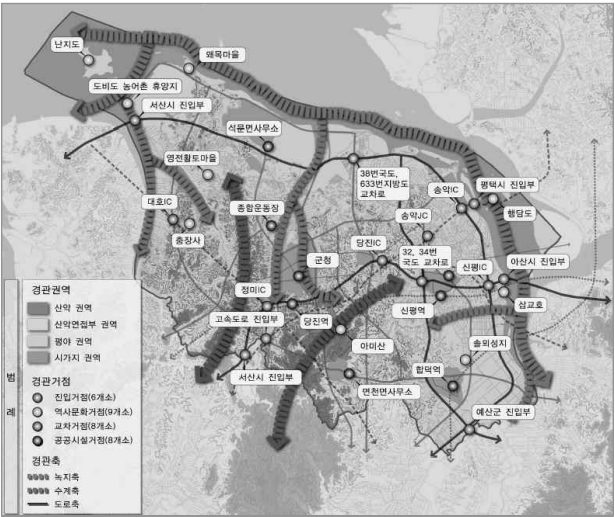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의 목표

- 당진군 도시미래상은 “인간과 자연, 풍요와 행복이 어우러진 신산업 항만도시”로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임해형산업거점도시, 항만·물류거점도시, 관광·휴양도시의 실천적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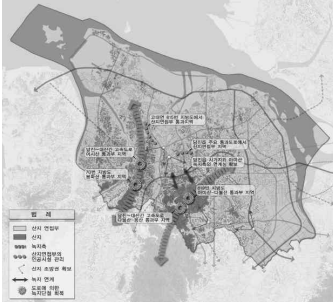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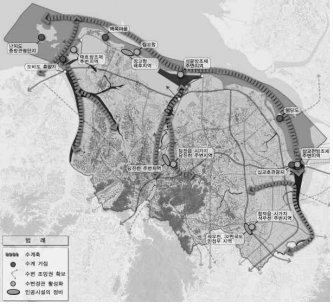
임해형 산업거점도시	항만·물류거점도시	관광·휴양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통한 산업거점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양질의 산업요지 집적공급을 통한 우수기업의 적극 유치- 산업단지와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우수한 기술력·인력 확보- 오염방지대책 수립으로 환경오염의 최소화- 공원 및 녹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철로,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유통의 극대화 도모- 지역산업발전 및 물류기능 제고를 위한 종합물류·유통체계 확립- 국제교역을 위한 첨단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 연계 이용방안 및 장기적 개발·보전계획 수립- 기존 관광지의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및 수산업 연계 육성

부문별 계획 : 경관 및 미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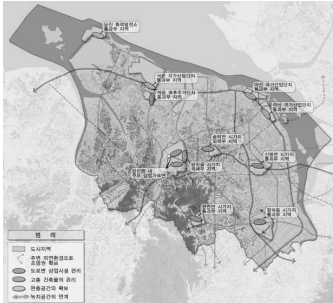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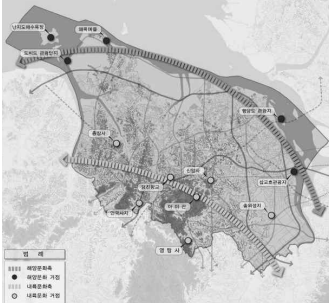

- 기본목표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도시 정체성의 향상, 쾌적한 생활공간 형성, 개성있는 지역이미지 형성
- 경관권역 : 지형·환경적 특성에 따라 산악권역, 산악연접부권역, 평야권역, 시가지권역으로 설정
- 경 관 축 : 자연·인문경관의 환경특성 및 활용에 따라 녹지축, 수계축, 도로축으로 설정
- 경관거점 : 이용률 및 장소성에 따라 진입거점, 역사문화거점, 교차거점, 공공시설거점으로 설정



• 경관유형별 관리지침1 - 조망형 경관

구분	산악경관	평야경관	수변경관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의 보존 및 연계성 확보, 녹지축 단절구간의 복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지의 스카이라인 훼손방지, 인공시설과 조화유도- 산지로의 조망확보 및 통경축 형성, 녹시율의 증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야의 개방감을 위한 인공시설의 시각적 위압감 최소화- 주변 자연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인공시설의 관리- 산악경관과 시가지 내 녹지공간의 연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의 개방감·통일성을 위해 인공시설물의 층고형태배치관리- 주변녹지경관과 연계한 질 높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해안, 하천으로 접근 및 이용시설 확보로 이용객의 증대
가이드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고에 의한 산지지역의 관리- 녹지축의 연계성 강화- 산 조망에 대한 경관관리- 산악경관과 인공시설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야경관의 개방감 활용- 농림지역의 보존- 인공시설의 조화유도- 농촌경관의 미관통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의 개방감 확보- 수변으로의 접근성 확보- 조망공간의 확보- 수변의 상징성, 다양성 향상
관리 지침도			

• 경관유형별 관리지침2 - 환경형 경관

구분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도로경관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지의 혼잡한 경관 정비, 산업단지의 위압감 저감- 배후 산지로의 조망 위한 층고 관리, 통경축 설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녹지공간의 확보 및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자체 관리를 통한 개선된 역사문화경관 제공- 문화관광지 주변 인공시설의 관리 통한 난개발 방지- 녹지체계, 타경관자원과의 연계성 고려한 경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 최소화-국도, 고속도로 주요구간에서 인공시설 관리- 조망공간의 확보, 다양한 볼거리 제공, 가로시설물의 미적향상 등 주변환경 이용
가이드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의 쾌적성 향상- 상업지의 통일된 이미지 형성- 공업지의 위압감 감소-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자체에 대한 관리- 문화관광지 주변의 정비-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확보- 주변 자연적 요소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경관의 녹지공간 확보- 도로변의 개방감 확보- 군 진입구간, 주요지역의 인지성 강화- 도로변 인공시설물의 정비
관리 지침도			

당진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09)

- “서해안 관광 신천지 - 당진” 건설
- 당진군 관광 비전 : 아름다운 전원휴양도시 이미지 구축, 수도권 나들이 명소, 사람과 예술이 어우러진 체험관광명소, 수도권 인접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
- 관광개발전략 도출 : 감성 이미지의 개발을 통한 관광지 인지도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의 추진으로 관광거점 육성,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로 고유성 높은 관광매력 강화, 근교형 나들이 명소의 육성으로 관광 집객력 강화
- 전략별 핵심 도입사업 도출

전략	핵심사업	전략추진사업	지원사업
감성 이미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교호 아트스케이프 조성 - 기지시 가로경관 정비 - 상록아트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록수 문학마을 조성 - 당진 예술인마을 조성 - 예술인벤처 육성사업 - 기지시줄다리기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록수 화제화마케팅
해양 관광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버그린 리조플렉스 - 맷돌포.음섬포 해안경관거리 조성 - 관광지 확대지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대교 경관조명 설치 - 한진포 일출전망공원 - 성구미 환경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치마을 조성
차별적 관광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견주 전승체험관 조성 - 황토마을 조성 - 오봉제 연꽃공원 조성 - 농어촌관광 타겟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피성지 확대 조성 - 청삼체험센터 조성 - 아트팍스테이 조성 - 농어촌관광스타상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문습지생태공원 조성 - 아미산 테마등산공원 조성
근교형 나들이 명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음식명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목수산물판매장 조성 - 5일장 관광상품화 	

6. 사례분석

경기도 안산시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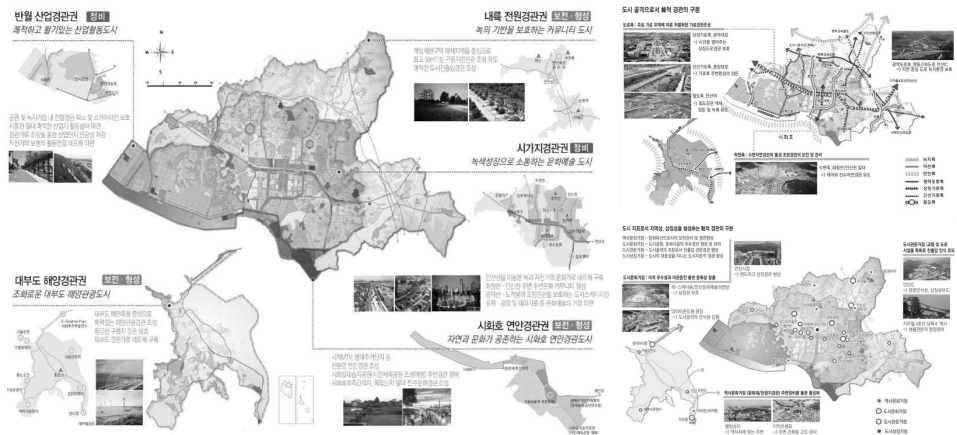
- 안산시는 서해안의 공업도시 중에 하나로, 서울의 인구 및 산업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신도시가 개발된 계획도시로서 시승격 당시(1986) 인구 13만명에서 현재는 75만명으로 단시간에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대도시로 성장하였음
- 안산시는 획일적인 인공적인 공업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안산시만의 경관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방향 및 목표

- 안산시는 계획도시의 인공적인 이미지를 순화하고, 많은 역사문화인물을 배출한 문화도시로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지를 바탕으로 경관미래상을 ‘녹색성장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로 정하고 비전으로는 조화로운 도시(녹색성장), 활기있는 도시(소통), 이야기가 있는 도시(문화)로 설정하였음

경관계획

- 면적인 경관특성에 따라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물리적 경관구조, 토지이용, 경관자원 분포 3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내륙전원경관권, 시가지경관권, 반월산업경관권, 시화호연안경관권, 대부도해양경관권의 5개의 경관권역을 설정하였음
- 경관축(도시의 틀)은 녹지축, 하천축, 연안축, 도로축, 철도축으로 분류하고, 경관거점(도시지표)은 역사문화거점, 도시문화거점, 도시관문거점, 도시상징거점으로 설정하였음



-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필요지역, 양호한 경관자원으로 지속적인 보존 필요지역, 대표적 경관으로서 우선정비지역,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 철도·도로·하천 주변지역, 주요 역사문화거점지역 등을 기준으로 설정함
- 우선추진 경관사업으로는 안산25시광장 및 광덕대로 주변 경관정비, 친수하천주변 경관정비, 버대길 진출입상징가로 조성, 안산선 녹색성장길 조성, 산단 고가차도 정비, 매력적인 탄도항 경관형성 등이 있음

경기도 평택시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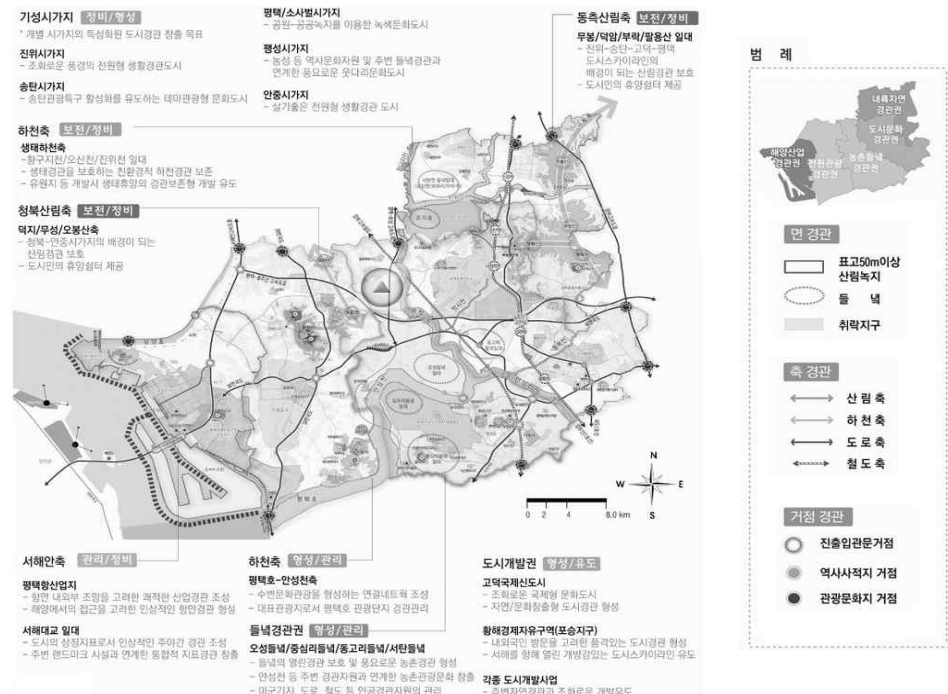
- 서해안을 끼고 경기도 남단에 위치하여 당진시와 이웃한 평택시는 1995년 32만명에서 현재 42만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임
- 수변 및 녹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도농통합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국제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함

방향 및 목표

- 평택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경관미래상을 ‘아름다움에 물드는 未來都市 평택’으로 정하였음. 이를 위해 들녘경관과 수변경관의 보전을 통한 정체성 확립(도시보전), 일류도시 문화경관 마련(도시관리), 다채롭고 감각적인 비전경관 조성(도시창조)을 기본목표로 설정함

경관계획

-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경관권역은 내륙자연경관권, 농촌들녘경관권, 전원관광경관권, 해양산업경관권으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함. 선적 관리대상이 되는 도시골격의 경관축으로는 산림경관축, 해양경관축, 교통경관축, 수변경관축으로, 도시의 지표가 되는 경관거점은 진출입관문거점, 도시지표 거점, 역사문화거점, 관광여가거점으로 설정함
-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자연경관(표고 50m이상 산림지 및 보전녹지지역), 수변경관(하천경계에서 약200m내외), 들녘경관(대규모 들녘 및 농촌마을 포함하여 지적선 및 도로, 지형 등 경계), 항만경관(해안경계부터 약50~200m내외의 도로 및 단지구역 경계), 시가지경관(중심상업지역 중심지 일대), 산업지경관(산업기능 수행하는 시가지 및 산림녹지 인접 산업단지), 국도축(도로 경계부터 약100m내외 범위에서 용도 및 지적), 철도축경관(철도녹지 및 주요도로 기준), 전통경관(문화재보호구역 경계)의 9가지로 구분됨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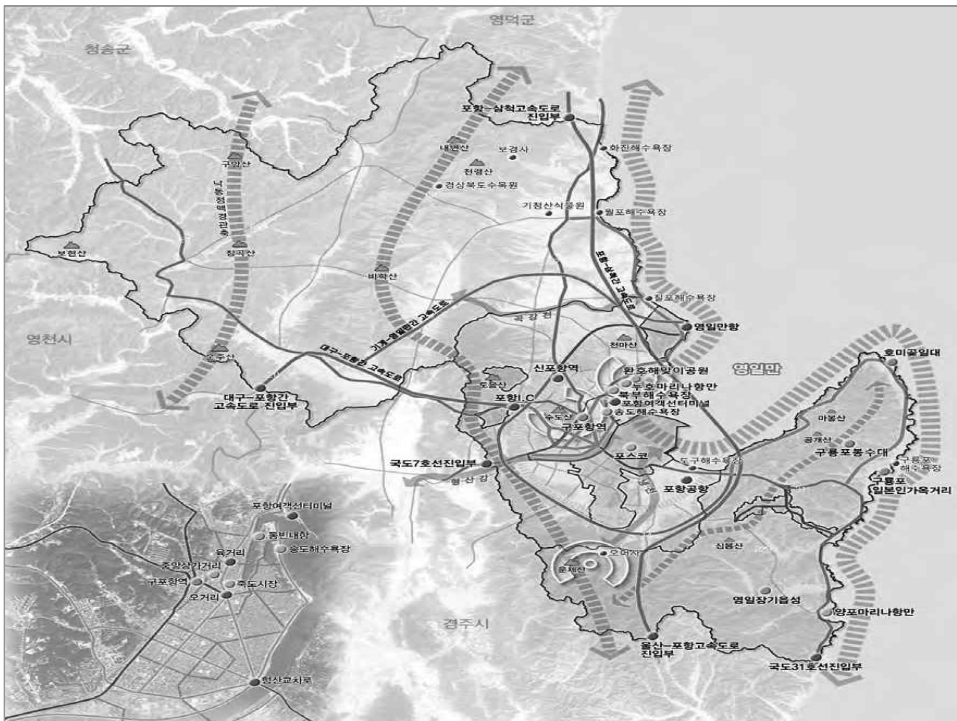
- 포항시는 동해에 접하고 있으며 동시에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동해권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대구·경북지역의 환동해권 관문도시이자 향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교역의 거점도시로서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자 광역교통망을 정비하고, 글로벌 물류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테라노바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방향 및 목표

- 포항시는 푸른바다와 산이 어우러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글로벌 테크노 폴리스, 포항으로 미래상을 설정함
- 경관목표는 해양문화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아트디자인도시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해양문화 관광도시”는 푸른 녹음과 전원적 풍경이 어우러진 자연해양 경관과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경관 조성을, “첨단산업도시”는 산업경관을 보다 매력적으로 조성, 상징적인 경관 이미지 창출을, “친환경생태도시”는 풍부한 수변, 산악경관의 특성이 잘 보존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아트디자인 도시”는 포항의 역사성, 정체성, 미래성을 담은 매력적인 도시경관 형성으로 설정함

경관계획

- 경관권역은 원도심 경관권역, 시가지 경관권역, 산업단지 경관권역, 자연경관권역으로 설정하였고, 경관축은 녹지, 수변, 도로, 조망경관축을 설정하였으며, 경관거점은 지표적 경관거점,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관문적 경관거점, 특화경관거점으로 설정함



전라남도 광양시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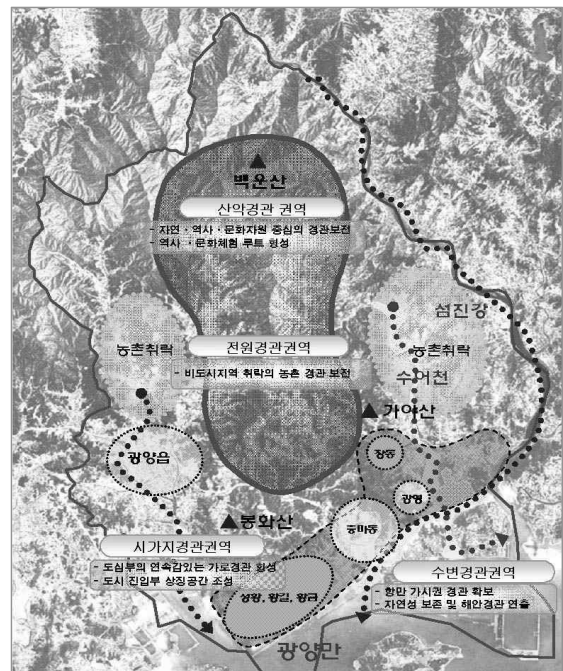
- 광양시는 1995년에 통합을 이루어 도시와 농촌 복합형 도시인 광양시로 새출발 하였으며,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 항만도시임
- 광양에는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양항이 있음. 또한,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일관제철소로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조선·기계 산업의 모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방향 및 목표

- 세계적인 항만물류도시로서 특화된 매력있는 도시공간 창출
- 광양시의 우수한 자연·역사·문화적 경관의 계승·보전
- 시민참여적 도시경관관리를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의식 제고

경관계획

- 광양시는 광양항 「컨」 부두건설 및 배후부지 조성과 광양만권 신산업지대 조성에 따라 장차 21세기를 대비한 세계적인 항만도시 및 임해형 공업도시로서의 도시 미래상을 지향하는 국가적 성장 거점도시임
- 특히 황금황길성황지구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및 관련단지의 후면 배후 신도시이자 「컨」 부두건설, 항만관련단지 및 관련공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에 대처하고, 광양 「컨」 부두와 연계된 고용·건설·상업 및 서비스 인구를 위한 정주공간 및 상업·업무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적 신시가지임
-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바람직한 정주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용도지역 계획제도로서는 계획적 개발이 난이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기능 강화, 도시미관 증진 및 중심지의 토지 이용 고도화를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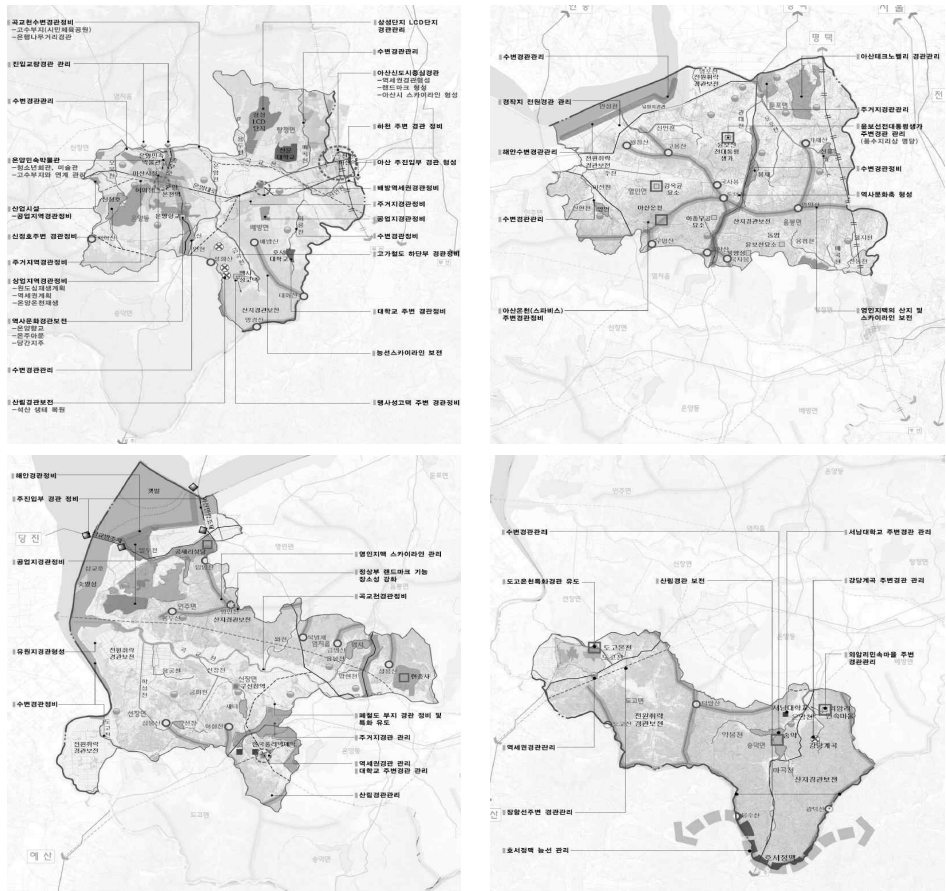
- 아산시는 당진시와 동측으로 접하는 도시로서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임
- 서해안 지역발전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아산항 종합개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현충사·도고온천·아산온천·광덕산·삽교호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기본방향 및 목표

- 아산시는 경관미래상을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첨단 자족도시”로 설정함
- 목표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 정립, 역사·전통·문화경관 창출, 활력있는 미래형 첨단도시경관 형성으로 설정함
-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 정립”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친화적인 수변 및 하천 등 아름다운 자연의 보존과 유지를 통한 청정도시 경관을 조성, “역사·전통·문화경관 창출”은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인프라를 갖춘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조성, “활력있는 미래형 첨단도시경관형성”은 현대적인 신도심부의 쾌적성을 강화하고, 삼성 LCD, 아산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여 활력 있는 미래형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 설정함

경관계획

- 경관권역은 중심부경관권역, 북부 경관권역, 서부 경관권역, 남부 경관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을 구분하고 세부 경관계획을 제시함



일본 오사카

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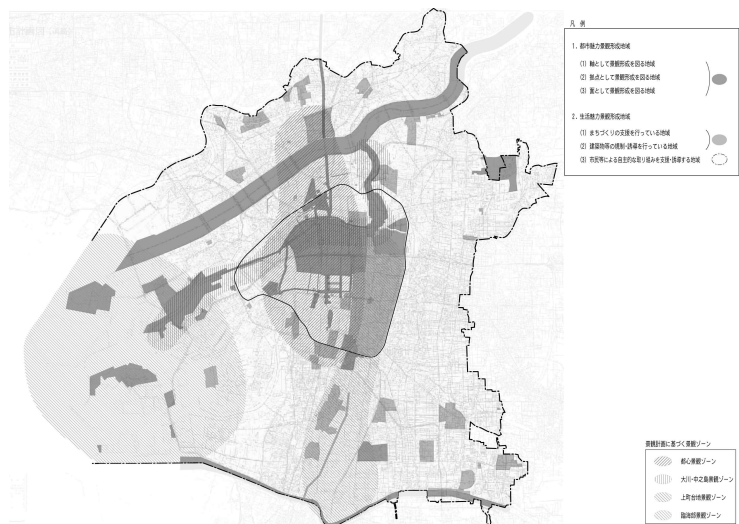
- 오사카는 일본의 전국시대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을 세워 정치경제의 중심이 된 이후, 17세기 에도시대에는 제국물산의유통의 중심으로 발전함
- 일본 제2의 도시로 발전하면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이르는 독창적인 경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일본의 산업·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임

기본방향 및 목표

- 오사카시는 고밀의 시가화에 따라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 마찌즈쿠리 목표아래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오사카시는 「어메니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오사카다운 도시 경관을 만든다」를 기본목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는 기분이 좋고”, “풍족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리”, “오사카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자연이나 역사, 문화에 접해 대도시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설정하였음

경관형성계획

- 도시매력경관형성지역은 수변 및 도심지역에서 경관형성상의 골격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축과 거점을 설정하여 경관형성을 도모
 - 축 : 건축미관유도, 광고물 경관형성, 옥외광고물 가이드 플랜 지정, 하천, 광역 간선도로
 - 거점 : 대규모 개발지구, 구미관지구, 대규모 공원
 - 면 : 도심중앙부, 대천, 나카노시마, 도톰보리강, 향만지구
- 생활매력경관형성지역은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장소 주택지등에 대해서 매력적인 경관형성
 - 마찌즈쿠리 지원실시 지역 : 신시이바시지구, HOPE
 - 건축물의 규제 유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풍치지구, 특정가고, 고도이용지구, 건축협정지구 등
- 시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경관형성에 대한 지원·유도
 - 경관형성을 위한 운동, 낙서 제거, 청소방법·방재활동을 실시하는 지구 등



일본 기타큐슈

도시소개

- 기타큐슈는 일본 최대의 철강기업인 신일본제철 아하타제철소가 입지한 도시로 일본 4대공업 지대의 하나인 기타큐슈공업지대를 형성한 도시임
-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공업은 쇠퇴하였으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과 인재기술노하우를 살린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코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임

기본방향 및 목표

- 기타큐슈시는 도시적 측면에서 “세계의 환경수도”를 지향하며,
- 경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환경의 변화, 시민의 가치관의 다양화,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녹색 르네상스계획(緑)のルネッサンス計画)”를 추진함

경관형성계획

- 경관은 녹색의 보전과 활용, 시가지의 녹화, 체계적인 공원 정비, 관리 및 녹화활동의 추진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추진함
- 초록의 보전과 활용은 파노라마의 녹색이 빛나는 마을 만들기로 기타큐슈시의 주요산, 태양의 파노라마의 녹색을 살려,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함. 또한, 자연 환경의 보전과 함께, 시민의 여가존을 활용함(자연 지역의 초록의 보전·활용, 시가지에 분포하는 수목등의 보전 활용)
- 시가지의 녹화는 거리의 기능과 초록이 합쳐지는 윤택한 있는 마을 조성 시가지내의 초록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의 기능과 조화를 이룬 뛰어난 디자인을 가진 초록을 정비함 (꽃과 초록의 심볼 공간의 정비, 초록의 네트워크의 골격을 이루는 초록의 정비, 시가지 환경의 향상을 가져오는 민유지의 초록의 정비, 꽃의 마을 만들기)
- 체계적인 공원 정비는 다양한 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활발함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공원체계에 근거한 공원의 정비, 공원정비시 사회적 요구에 대응, 기존 공원의 재활력화를 도모함
- 경관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추진체계를 견고히 도모하는 것으로 시민참가에 의한 공원이용의 활성화, 시민·기업·행정이 함께하는 녹화활동을 추진함



山田緑地 (芝生広場・せせらぎ)



響灘緑地 (グリーンパーク)

일본 고베

도시소개

- 고베시는 1868년 개항하여 일본최초로 서양문물이 유입되었던 근대무역항으로, 외국인 거류지 설치를 계기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하면서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며, 푸른 숲이 우거진 롯코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해안경관이 매력적인 항구도시임
- 고베시는 간척공사로 제철, 제강산업을 주업종으로 공장지대가 형성,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 이후에는 공장들이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심부가 황폐해지고,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고밀도 환경에서 휴먼스케일을 일지 않도록 기본목표를 정하여 도시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음
- 바닷가를 매립하여 완공된 포트 아일랜드에는 항만시설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국제회의장, 패션타운 등을 갖춘 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 항구의 화물기차역 터를 재개발한 고베 하버랜드는 쇼핑, 식사, 오락기능을 갖춘 관광지로서 유명

기본방향 및 목표

- 고베시는 산과 바다 등 자연 지형적인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건축물 신축시 이를 따르도록 하여 산과 바다의 전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음
- 2-30년 전부터는 아름다운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1988년에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스마 마이코 해안가에 도시경관형성지역을 지정, 이 해안가를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특징을 살린 개발행위와 보전방향을 설정하였음

경관형성계획

- 해안구역별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건폐율, 외벽 후퇴거리, 색채, 지붕형태, 차양,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음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신고하도록 하며, 20층 이상 건축물은 사전협의를 해야하며, 경관조례에 의해 '경관형성 중요건축물'제도를 도입하여 중요 건축물에 지정하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함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개성을 지니고 있어 고베시 경관 형성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등에 표창하는 '고베경관 포인트상'제도가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어 디자인을 고려한 건축물 건립을 독려함
- 롯코산이나 바다로부터 야경 및 주요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라이트업이나 가로등, 안내사인 설치 등 가로 정비를 실시하여 야간경관 관광루트화를 추진하고 있음



스페인 빌바오

도시개요

- 스페인의 바스크주의 주도로서 네르비온강에 면한 항구도시이며, 영국, 프랑스등과의 교역중심지로서 발전해왔음
- 17세기에는 철광석을 원료로한 제철수에서 생산하여 수출을 시작하여 18세기에는 아메리카 식민지들과의 무역으로 성장하여 20세기초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됨
- 1920년대 철강자원의 고갈과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양적 팽창은 멈추게 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경기침체의 늪에 빠졌다가 1980년대 후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도시개조작업으로 회생하고 있음

기본방향 및 목표

- 산업혁명시대의 공업도시에서 유럽최고의 문화도시로 재탄생한 스페인 빌바오는 “The 깎 2000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
- 1987년 수립된 “general Urban Plan”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새로운 경제활동의 진흥, 문화적 어메니티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행
- 주요 방향은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에 중점을 둔 문화정책의 추진
- 바스크지역의 고고학적 유산을 보전
- 문화접근 대중화 프로그램(casas de cultura)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각종 축제 및 페스티벌, 카니발 개최
- 빌바오 재개발계획의 추진 : 구겐하임박물관 건립, 항만운영능력 배가, 공항 재단장, 도심철도 건설, 인도교 건설, 강변지역 개발 등

경관형성계획

- 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주거지역을 보호
- 15개 중소지역의 각각의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및 균형발전 유도
- 주변 160여개 전통마을은 개발보다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지원 장려
- 교량, 보행로, 공공시설물, 공원 등 수변공간과 주변지역의 통합디자인
- 항구, 공항 등 국제적 교통망 조성 및 수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심 가로망 정비
- 수변 노후지역의 토지이용 재편을 통해 기능 회복 및 어메니티 향상
-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랜드마크화, 강변 문화벨트 조성



미국 피츠버그

도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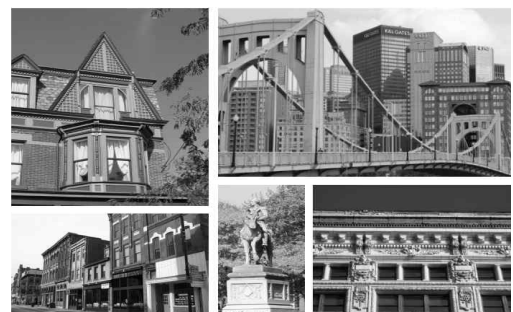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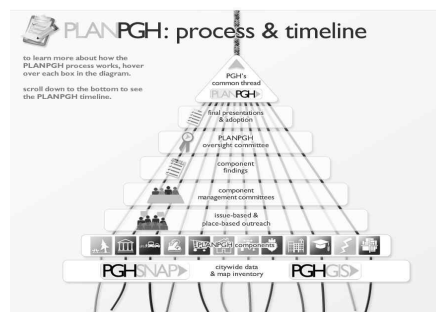
- 피츠버그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전형적인 상공업도시로 수상교통·철도망의 결절점이며, 부근의 펜실베이니아 탄전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슈퍼리어호(湖) 서쪽 호안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세계적인 제철공업 지대로 발전함
- ‘철강 도시’라는 명성과 함께 ‘연기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심한 스모그 현상에 시달리는 도시로 이름나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모그 제거에 성공하였고, 원자력·알루미늄·기계·유리 등의 각종 공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기본방향 및 목표

- 피츠버그는 PLANPGH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지역 허브로서의 강화
 2. 삶, 주거, 여가, 배움 등으로부터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
 3. 피츠버그 경제와 세금을 다변화
 4. 주민의 정체성과 주변지역과의 공동체를 조성
 5. 피츠버그의 다양한 자연 경관과 문화 자원을 활용
 6. 자연과 건설 환경 사이의 관계를 공생하며 향상

경관형성계획

- 도시계획에서 광장, 공원, 레크레이션, 문화유산, 공공예술, 도시디자인, 주택 등의 항목이 경관 계획과 관련성이 높으며, 각 구성요소는 공간단위별로 계획내용을 다름
- 공원 : 소유, 관리, 유지보수 및 시스템의 연결성 문제 해결, 빈공간·레크레이션 공간의 프로그래밍
- 보전 : 역사문화자산의 보전, 역사건축물 보전 등
- 공공예술 :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시민의 자부심과 정체성 제고를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예술조성
- 도시디자인 : 미래개발에 따른 설계, 규모, 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영국 글래스고우

도시개요

- 클라이드강을 끼고 발달한 스코틀랜드 최대의 도시로 경제산업의 중심지임
- 1960년대 이후 중공업의 쇠퇴에 따라 인구감소가 뚜렷하였으나, 1978년 이후 적극적인 거주권 장정책과, 1990년대 이후 도시재개발과 서비스업 증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건축 및 설계의 도시로 선정

기본방향 및 목표

- 글래스고우는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 정체성 분위기의 창출 - 디자인, 거리와 거리의 패턴, 공백 skylines, 양식, 사례 및 건축 자재를 구축하는 풍경에 대한 제안의 반응, 자연 기능
-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창조 - 통합적이고, 창조적 활동인 활동을 조성하고, 유용성, 매력적인, 공공 및 개인 공간을 구별
- 3. 쉽고 건강 운동 만들기 - 도심부와 주변부의 대중교통서비스, 근린주구와 주요 교통망간의 연결, 도보와 자전거교통의 장려
- 4. 환영 분위기 만들기 - 열린 공간, 새로운 창조물, 시야, 랜드마크, 예술품, 매력적인 건물 등의 조명계획을 통한 안전성 향상
- 5. 장소 용도복합화 - 상점, 카페, 녹지, 산, 스포츠문화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용도 혼합과 건축적 재이용을 통한 성공적이고, 지속성이 있으며, 활력있는 장소의 창조
- 6.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재활용 - 에너지, 물질과 기타 자원의 최소화, 재이용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화, 생물 다양성을 강화 및 자연과 사람이 만든 기능을 강조하고, 폐기물 감소, 지속적인 배수 시스템을 제공

경관형성계획

- 개발정책 원칙(DPP)에 따라 중심부와 동서남북지역을 교통인프라, 주거, 산업, 타운센터, 소매 지역, 업무지구, 복합용도개발, 병원, 경기장, 녹지, 그린벨트 등을 개발함
- 디자인은 개발의 성격에 따라 디자인컨텍스트, 접근성, 보전 및 안전, 조경설계 및 오픈스페이스, 배수, 쓰레기와 재활용, 규모 및 재료, 공공예술등을 고려함
- 디자인컨텍스트는 마을풍경 디자인, 녹색 네트워크 연결, 역사 및 자연환경 보호, 랜드마크 건물, 경관, 스카이라인의 공공경관 보호 등을 계획함
- 규모 및 재료에서는 선, 높이, 규모, 세부디자인, 재료, 형태, 크기, 비율, 주변건물과의 시각적 조화, 사생활, 일조 등을 계획함



7.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경관종합분석

구분		분석	계획과제
입지 및 역사 문화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의 개발압력 지속 영향, 산업도시로의 이미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발전을 부각하며, 물(水) 중심의 해안도시이미지 부각
	역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포문화의 특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대안 마련
자연 인문 환경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내 가장 활발한 인구 증가 지역 당진동,송악읍, 신평면, 합덕읍에 인구 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필요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적 토지이용이 뚜렷한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용도지역에 대한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 필요
	지형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고북저형의 남측이 높고 해안부인 북측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음 표고 50m 이하의 저지대가 67.8%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에 입지한 아미산 일대로의 조망을 최대화한 경관계획 필요
	식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자연도2등급이 대부분이며, 소나무, 상수리나무가 대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세한 산림형성 보전 고나리
경관 자원	산림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기점으로 4개의 능선축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지 배후 경관 역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요된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부의 스카이라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산지와 시가지 녹지의 연계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와 연결된 녹지축 형성
	하천·호소·해안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호수, 저수지 경관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력적인 수경관 형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 연결건축물 경관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관 개선 및 스카이라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가 주변 건축물의 경관 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등의 경관 개선
	농경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경관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지경관 개방형 경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전탑, 개별입지 공장의 경관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입지 공장 및 시설의 경관관리 필요
	취락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주택의 획일화, 무질서한 외관 및 색채 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특성에 적합한 건축물 경관관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된 농자재 및 시설물로 주변경관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선차폐 유도
	항포구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어촌경관과 펜션등의 관광시설 입지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 경관 유도
	주거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아파트의 부분별한 입지로 도시경관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스카이라인 형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다세대 주택지 경관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경관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부족, 주거환경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확충 및 주거지도로 경관개선

구분		분석	계획과제
경관 자원	상업지 경관	• 차량중심의 공간조성으로 보행환경 열악	• 보행 중심의 매력적인 상업가로 형성
		• 노후된 건축물, 시설물로 경관악화	• 상업지역 경관정비
		•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난립	• 가이드라인을 통한 경관정비
	공업지 경관	• 북부해안의 국가산업단지 밀집	• 해안조망을 고려한 경관관리 필요
		• 지방산업단지 원경 조망 불량	• 건축물, 지붕 등의 색채의 조화 유도
		• 개별 공업시설의 경관불량	• 산업단지 조성 및 경관관리 강화
	도로 경관	• 도로변 무질서한 개발로 경관저해	•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시설물 입지 및 경관 관리
		•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난립	•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경관관리
		• 제방도로 조망 양호	• 도로변 해안조망 공간 조성
	역사문화 경관	• 문화재와 주변지역간의 경관 부조화	• 주요 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 및 주변지역의 일체적 경관관리 추진
• 중요무형문화자원에 대한 소극적 경관형성		• 지역테마경관에 대한 일체의 정비 추진	
경관의식 조사	대표경관 및 이미지	• 현재의 당진시는 농업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교육, 예술 등의 고품격 도시이미지로서 변모 예상	• 주민의 문화, 예술, 교육과 관련된 도시이미지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필요
	경관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및 해안, 산림 등 자연경관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상업업무, 하천, 가로 등 도시화된 지역에 만족도가 낮음	• 인공경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경관관리 필요
	경관관리	• 경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절대적 • 전체적인 주민참여의사가 높는데 반하여 참여내용에는 소극적인 태도	• 적극적인 경관관리 및 경관사업의 추진 필요 •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경관홍보의 적극적 추진
상위 및 관련 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당진시는 미래지향적, 첨단적 이미지이며, 상징색채로는 은회색인 무채색계열의 고명도 색채 선정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기준을 규정한 지침서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한정	• 공공디자인관련 경관설계지침에 반영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 매체에 대한 디자인 개선
	당진군 기본계획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도시 정체성의 향상, 쾌적한 생활공간 형성, 개성있는 지역이미지 형성	• 경관기본구상과의 정합성 유지

구분		분석	계획과제
사례 분석	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관미래상을 '녹색성장으로 소통하는 문화 도시'로 정하고 비전으로는 조화로운 도시 (녹색성장), 활기있는 도시(소통), 이야기가 있는 도시(문화)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관 목표 설정에 적극 반영
	평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민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를 슬로건 으로 하고, 경관미래상을 '아름다움에 물드 는 未來都市 평택'으로 정하였음. 이를 위해 들녘경관과 수변경관의 보전을 통한 정체성 확립(도시보전), 일류도시 문화경관 마련(도시 관리), 다채롭고 감각적인 비전경관 조성(도 시창조)를 기본목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밀착형의 도시경관형성을 고려
	포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포항시는 푸른바다와 산이 어우러지고, 에너 지가 넘치는 글로벌 테크노 폴리스, 포항으로 미래상을 설정함경관목표는 해양문화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아트디자인도시로 목표를 설 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관목표설정애 산업경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계적인 항만물류도시로서의 특화된 매력있 는 도시공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시미관 증진 및 기존시가지에 대한 경관관 리 고려
	아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첨단자족도시로서,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정 립, 역사전통문화경관창출, 활력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를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업,역사,문화를 중심으로 목표설정시 고려
	일본 오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메니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매력있는 도시경관만들기를 목표로 법적 제도적인 후 속조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민들의 자율적인 경관형성을 지원하고 유 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일본 키타큐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계의 환경수도를 지향하며, 녹색 르네상스 계획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철강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환경, 녹색 의 개념 도입을 고려
	일본 고베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과 바다 등 자연 지형적인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신고, 20층 이상 건 축물은 사전협의, 경관조례에 의해 '경관형 성 중요건축물'제도를 도입색채는 고채도와 고명도 사용을 제한하고, 중 저채도 사용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연경관으로의 보전당진시 경관조례의 개정하여 경관관리 원활 화대표경관에 대한 경관사업 추진색채사용범위의 가이드라인 제시
	스페인 빌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시재생프로젝트의 통합적 추진으로 유럽최 고의 문화도시를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문화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랜드마크화도심부의 도시재생과 통합적 추진
	미국 피츠버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민의 정체성과 함께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원, 건축물, 공공예술, 도시디자인과의 통합 적 추진
	영국 글라스고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30년간의 꾸준한 도시재개발과 서비스업 증 대정책으로 첨단산업도시로 변화정체성, 안전, 쾌적, 건강, 용도복합화, 녹색 성장등 선도적인 도시목표를 정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시재정비시 일체화된 디자인 및 경관형성 노력

SWOT분석

Strength

- 현대제철이 입지하여 역동적인 철강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 천혜의 자연경관 등의 볼거리가 풍부하며, 특히 해안지역은 관광객들의 드라이브 및 여행코스로서 이미 각광받고 있음
- 솔피성지, 합덕성당 등 종교자원 등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문화자원 보유
- 당진동 도심부를 감싸안으며 지나는 당진천이 구시가지 및 신개발지역을 아우르며 흐르며 자연수변축을 형성하여 도심공간이 하나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

Weakness

- 개발압력의 증가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계획적 입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경관자원의 훼손 가중 및 회색도시로서의 이미지 부담
- 국도를 따른 개발양상을 보여 생활권이 분리 및 도심 기능이 약하며, 각 지역별 특화기능 및 기능분담이 미미하여 지역별 경관적 특색이 모호함
- 터미널 및 시청사 이전, 외곽으로의 도시개발 확산 등으로 당진을 상징하는 원도심의 중심성이 약화되고, 상권 침체 등의 공동화 현상 우려

Opportunity

- 첨단 도시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변화하기 위한 서해안권 국제산업·교류거점도시로서의 기반 강화
- 시승격과 함께 도시이미지 한단계 도약의 기회와 당진동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여론 확산
- 경관관리를 위한 주민의 참여 중요성, 경관형성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경관에 대한 주민 관심 증대

Threat

- 통합적인 경관계획 부재로 시가지지역과 비시가지 지역에 대한 조화롭지 못한 산발적, 단편적 개발 우려
-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당진시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주민 밀착형의 상징요소 부재
- 주민들에게 경관계획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의견분쟁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시 어려움 예상
- 지속적인 성장도시로서 인근 타도시와의 차별화 및 특성화 결여

계획과제 도출

- 강점요소의 보전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한 계획과제
- 약점요소의 혁신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과제
- 기회요소를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계획과제
-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계획과제

계획과제		문제점	계획방향
보전	우수한 경관자원의 체계적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하기 위한 체계 부재 • 해안선, 산림, 하천의 무계획적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보존대상인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경관보전 시스템 강화 • 당진시에 적합한 경관조례의 제정 및 적용
	통합적 경관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 미흡 • 점적, 사업단위별 경관관리 위주 • 동질특성의 권역에 의한 경관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 당진시에 적합한 경관조례의 제정 및 적용 • 경관협정의 활성화
형성	도시이미지에 적합한 경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관에 대한 높은 인지도 • 서해안권의 국제교류거점도시에 걸맞는 상징경관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문국가산단 등 계획적 입지에 대한 산업지대 특화 • 미래도시로서 랜드마크적 경관 및 지역주민 밀착형의 경관 창출
	미래도시와 연계한 경관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동 및 기성시가지의 노후화로 도시 및 가로경관 열악 • 녹지 및 공공의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 연계 및 관광자원화 • 도시재생사업 및 가로경관개선과 연계 • 도시녹화사업의 추진